

14일 Market Index			
코스피	3561.81	코스닥	847.96
	(-22.74)		(-12.53)
금리 (미국 9년)	2.533	환율	1433.85
	(-0.021)		(+8.05)

‘HBM 특수’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깜짝 실적’

매출 86조, 역대 분기 최대치
HBM 수요·폴드7 흥행 겹쳐
주가가 사상 최고가 근접 ‘화답’
임직원에 추가연동 보상 신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량 확대 등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3분기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각각 전년동기 대비 8.72%, 31.8% 증가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인 10조원을 20% 이상 뛰어넘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12조원 영업이익은 2022년 2분기 14조1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영업이익으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2018년 3분기 17조5700억원이었다. 매출 86조원은 역대 분기 최대 수치이며 80조를 넘어선 것도 최초이다. 과거 최대 매출은 2024년 3분기에 기록한 79조10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가 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D램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과 갤럭시 폴드7 판매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분기 들어 범용 D램인 DDR4가 DD



삼성전자가 2025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1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R5 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 서버용 고성능 D램 생산능력(캐파) 확대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9월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달보다 10.5% 오른 6.3달러로 집계됐다. DDR4 평균 고정거래가격이 6달러를 넘어선 건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실적이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는 한때 9만6000원까지 상승하며 2021년 1월 11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9만6800원)에도 바짝 다가섰다.

한편 삼성전자는 ‘깜짝 실적’ 발표에 이어 임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연동 주식보장 제도를 시행,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연동 주식보상(PSU·Performance Stock Units)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PSU는 단기 실적에 따른 초과이익성 과금(OPI)과 달리 회사의 미래 성과와 연동해 보상이 이뤄지는 선진형 보상제도다.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지급되는 보상 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직접적인 동기를 갖도록 설계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CL 1~2 직원에게는 200주, CL 3~4 직원에게는 300주씩을 지급하기로 이달 중 확정하고, 3년 뒤 주가 상승폭에 따라 지급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장기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인재 확보와 임직원 보상을 주가와 연동시켜 회사와 임직원이 공동체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주가 부양으로 이어져 주주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 예고

정부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추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등 한강벨트 인근 아파트 대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내일(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될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서울 25개 전 자치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표 증시 패닉, 환율 1430원 돌파

트럼프 관세에 시진핑 보복 악순환
코스피·닛케이 급락… 금값 최고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싸움이 아시아 증시를 패닉(공포)으로 몰아넣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 부사장 A씨)

14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이날 아시아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 장 초반 3646.77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코스피는 전장보다 0.63% 내린 3561.81로 장을 마쳤다. 일본 닛케이는 2.58% 떨어졌고, 대만 가권지수는 0.48% 내렸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0.62% 하락했다.

전날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날도 5.2원 오른 1431.0원에 중간거래를 마쳤다.

안전자산 가격은 급등했다. 13일(미동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현물 가격은 한때 4131.29달러까지 치솟았다. 장중 사상 최고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화오션과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시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5곳이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고 지지해 자신들의 주권·안보와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중국 내 조작·개인과 거래·협력 등 활동이 금지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항만세(입항수수료)에 대한 보복조치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연초부터 예고했던 중국산 선박 항만세 부과를 이날 시작했다. 이에 중국도 이날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맞대응했다.

한화오션은 자회사의 제재 소식에 5.76% 하락한 10만3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하은 기자 godhe@

LG전자, 인도 상장… ‘글로벌 사우스’ 전략 가속

공모가 최상단·54배 경쟁률 기록
재무 건전성 강화·미래동력 확보

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세계 1위 인구대국인 인도에서 국민 기업이 되고 인도 경제성장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NSE)에서 인도법인 상장 및 미래비전 발표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인도법인 발행주식의 15%에 해당하는 1억 181만 5859주를 구주매출로 처분했다. LG전자 인도법인의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인 주당 1140루피(한화 약 1만8000원)로 책정됐다.

주식배정청약에는 인도 IPO 시장에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려 공모 주식수의 54배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현지 투자자들의 지대한



인도 뭄바이 국립증권거래소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LG전자 인도법인 상장식에 참석한 LG전자 조주완 CEO. /LG전자

관심을 받았다. 공모가 기준 LG전자 인도법인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LG전자는 인도 자본시장에서 1조 8000억원 규모 현금을 국내로 조달한다. 금융비용, 차입금비용 등 영향없이

대규모 현금이 유입돼 재무건전성이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 LG전자는 조달자금을 미래성장 투자에 폭넓게 활용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장을 통해 LG전자 인도법인이 진정한 의미의 현지화 기업으로 거듭나는 만큼 인도시장에서의 성장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인도 가구 가운데 연평균수입 6000달러~3만 6000달러 구간 중소득 가구 비중은 지난 2020년 29%에서 오는 2030년 4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주완 LG전자CEO는 “이번 상장으로 인도는 LG전자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점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LG전자와 인도법인 성장을 동시에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



▲李 檢·경 거남 “국감서 거짓말 허용말아야… 위증 왜 수사안하나”
▲나경원 “민주당, 대법원장 질의 대상으로 삼아 삼권분립 근간 허물어” /사진 뉴시스

▲김성태 “국회의원 4개월 최혁진이 조희대 모멸… 정치 한참 잘못 배워”
▲김민수 “당심이 곧 민심… 맞지 않으면 당 떠나 중도정당 창당해야”

▲한동훈 “李대통령, 벌써 모양빠지게 도망가네요“ 마약수사 지시 또 직격
▲진영승 합참의장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 국민께 사죄드린다”

“배달앱 수수료 3년새 3배 올라… 자율규제가 플랫폼 힘 키워”

유통사 대표, 국감증인 소환

주병기·김명규·김병주 등 출석
“홈플러스 사태, 경영부실에 발생
미지급 대금 지급·이자보전 해야”

국정감사(국감) 이틀째인 14일 국회에 유통업계 대표가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 및 홈플러스 사태 등 유통업계 현안이 언급되며 낯선 질의가 오갔다.

이날 정부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질의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애플리케이션의 배달앱 수수료가 문제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2022년 5%에서 3년 만에 15%까지 오른 상황을 언급하며 “자율 규제에 맡긴 상황이 플랫폼의 힘을 키웠다”며 “공정 시장 경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향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두 배달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가 한집배달, 1인분 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소액 주문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의 과도한 할인율을 강제하며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쿠팡이츠는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명확히 확인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속 MBK파트너스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인수, 투자 미이행, 경영 전략 부재가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룹에도 MBK와 홈플러스는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혜택만 바란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지급 대금 즉각 지급 및 이자 보전 ▲사채 출연을 포함한 유동성 보강 ▲입점업체 및 노동자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는 “회생 절차 후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다”며 “남아 있는 대기업 및 금융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와는 “지난 4월부터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엔 증인으로 박대준 쿠팡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쿠팡의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기업인의 불필요한 출석을 최소화하기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복 의원은 비행기 발권시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29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증인 채택을 재신청할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국감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며 현안들과 엮여 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1면 ‘LG전자, 인도 시장…’서 계속

韓 ‘AI 대전환’ 전폭 투자에도 美·中 쫓기엔 ‘뱀새’ 수준

美·中 기업·정부 수백조 투입
美, 민간 빅테크 자본력 절대우위
아마존, 올해 설비투자 1000억 弗

“韓, AI 컴퓨팅 수요 충족 위해서
5년간 매년 5000억 弗 투자 필요”

국내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중국과의 규모 격차를 좁히는 것에는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은 주요 기업과 정부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퍼붓고 있다.

14일 시장 분석업체 코베이시레터 등 업계에 따르면 연산량 급증에 따른 GPU와 전력 부족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경쟁의 중심축은 ‘인프라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베이시레터는 소셜미디어 엑스(X·전트위터)를 통해 “AI 컴퓨팅 수요가 무어의 법칙(반도체 성능이 약 18개월마다 두 배로 향상된다는 경험칙)이 예측하는 성장 속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약 5000억달러(약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720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항 투자규모 선두인 미국은 민간 빅테크의 자본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 IR 콜에서 AI 중심 설비투자가 1000억달러(약 141조원)를 웃돌 수 있다고 언급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달러, 알파벳은 8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와 엔비디아 역시 10GW급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초대형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역시 중앙정부와 빅테크 기업이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총 컴퓨팅 파워 300엑사플롭스(EFLOPS)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 이미 280 EFLOPS에 도달했으며, 이 중 AI 전용 지능형 컴퓨팅만 90 EFLOPS에 달한다. 알리바바는 3년간 3800억 위안(약 74조원)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며 1조 파라미터급 모델 ‘Qwen3-Max’까지 공개했다.

전체 글로벌 AI 시장 역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 마켓앤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AI 칩 시장은 2024년 약 1230억달러(한화 약 173조 4000억원)에서 2030년 약 3100억달러(한화 약 437조 1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브로드컴·AMD 등 신규 업체들의 진입으로 일부 분산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기업·정부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투자 규모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AI 컴퓨팅 센

터 확충 계획을 추진하며 AI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총 1조 5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GPU 1만대, 2028년까지 1만 5000대(약 15엑사플롭스 수준)를 조달한다는 계획에 그쳤다. SK텔레콤과 AWS가 함께 건설 중인 7조원 규모 울산 AI 데이터센터도 2027년 41MW, 2029년 103MW까지 확장해 장기적으로 1GW급 전력 처리를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임에도 미·중의 투자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같은 규모 격차를 일부나마 극복할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인재 교류·양성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지목됐다.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는 “규모 경쟁에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미·중을 따라잡기 어렵지만 지방정부 간 실무협력과 인재 교류·양성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지방정부 간 협업이나 인재 교류는 중앙정부 간 협력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적어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부족한 교육재원과 앞선 경험·제도를 타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인도를 위해·인도에서 등 LG전자, 3대 비전 제시

인도 증시 상장과 더불어 조 CEO는 ▲‘인도를 위해’ ▲‘인도에서’ ▲‘인도를 세계로’ 만드는 비전을 밝혔다.

먼저 ‘인도를 위해’는 인도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특화 제품을 선보이는 등 현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이날 인도 고객을 위해 기획한 특화 가전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LG전자는 그간 모기퇴치 에어컨이나 세탁물 종류와 무게를 감지하는 AI 모터 등으로 현지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지속 선보여 왔다.

인도 여성들의 일상복 사리의 옷감을 섬세하게 관리해주는 세탁기, 수질 및 수압 상황을 고려해 UV 살균과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탑재한 정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에서’는 인도 내 생산뿐 아니라 R&D, 판매, 서비스 등 전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고 인도 경제 성장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LG전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어 6억달러를 투자해 스리시티 지역에도 신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스리시티 공장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은 약 2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인도를 세계로’는 이러한 비전을 기반으로 인도를 전사 성장전략의 한 축에 해당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거점 국가로 만들어 간다는 슬로건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국민 기업으로서 LG전자는 인도가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는 데에 파트너로 함께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최종적인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퓨처엠, 6710억 규모 음극재 계약

작년 매출액 18% 규모 ‘역대 최대액’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중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기술력과 내재화 경쟁력을 앞세운 대형 수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스코퓨처엠은 14일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671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의 약 18.1% 수준으로 2011년 음극재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단일 계약으

로는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4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번 계약은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공급망 내재화와 기술 고도화 전략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세계 음극재 시장은 그간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해 출하량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80%를 넘어섰다. 포스코퓨처엠은 비중국권 기업 중 유일하게 11위(1.3%)를 기록하며 ‘탈(脫)중국’ 공급망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안정적 조달망 확보를 위해 국내 소재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권희 기자 w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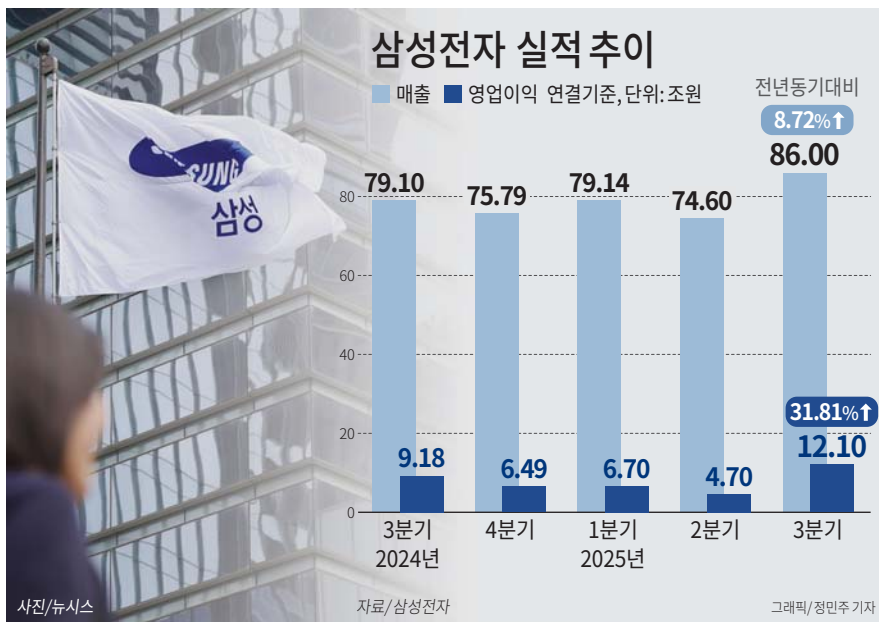
D램 수요·가격 회복세… K-반도체, 내년 실적개선 '청신호'

삼성전자 DS 영업이익 6조 추정
국내외 공장 증설… 신규투자 추진
업계, 내년까지 D램 가격 상승 전망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들의 메모리 수요가 늘면서 D램 가격이 상승한 것이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D램 가격 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14일 삼성전자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삼성전자는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72%, 영업이익은 31.81% 증가했다.

사업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반도체 사업이 전사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전반적으로 메모리부문 실적 개선과 비메모리 적자 폭 축소, 플래그십 스마트폰 실적 개선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범용D램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이 실적 개선의 추진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16Gb의 9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6.

30달러로 전월 대비 10.53% 상승했다. 이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이 6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만이다. DDR4 15Gb는 15.8달러에 거래중이며 지난달 대비 60% 높은 수치다.

신형 D램의 가격 상승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DDR5 16Gb 현물가격은 9달러



12나노급 32Gb DDR5 D램. /삼성전자

로 지난달 대비 48% 올랐다. 최근 D램 시장에서는 구형 D램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급등해 신형 D램 가격을 추월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구형 D램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자 수요가 점차 신형 D램으로 이동하며 세대교체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신형 D램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D램 수요 증가율은 17%로 생산 증가율인 15%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중심 수요가 서버 D램, GDDR7, LPDDR 5X 등으로 확산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는 D램 재고 물량을 아끼고 선택적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수요확대에도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이어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비메모리 사업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2조원이 넘었던 비메모리 분야 적자도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과 함께 이번 분기에 1조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구체적인 사업부문별 실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개선에는 D램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추세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후보자 접수 6명업일 불과 외부인사 불공정경쟁 '잡음'

BNK금융 경영승계절차

임추위 구성 등 '신속진행' 논란
금융권, 빈대인 회장 연임 수순 지적

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신속진행' 논란에 휩싸였다.

BNK금융이 예정보다 일찍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한 가운데 후보자 서류 접수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빈대인 현 BNK금융 회장의 '연임 수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임추위는 추석 직전인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에 돌입했다. BNK금융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시나 언론보도를 진행하지 않았다. 회장 경선 후보 지원서 마감(15일)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에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 지난 두 차례의 대표이사(회장) 선임 당시 경영승계절차 개시 사실과 일정을 즉각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BNK금융의 이번 임추위가 금융권의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치러졌고, 서류접수도 연휴를 포함해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외부 후보군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은행장이나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원 승계 절차를 가동하도록 정하고 있다. 빈대인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당초 금융권에서는 BNK금융이 11월 이후에야 경영승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BNK금융은 임추위 구성 직후 주요 외부 후보군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둘러 임추위를 구성한 만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BNK금융 임추위는 통상 한 달여 동안 진행되는 후보군 접수를 2주로 앞당겼다. 회장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경영 목표, 장기 비전을 담은 계획서 등인데, 2주에 불과한 접수 기간에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어 회장 후보군이 지원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6명업일에 불과하다. 임추위 구성 이후에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외부 후보군에게는 촉박한 일정이다.

BNK금융은 지난 2022년 빈대인 회장의 취임 당시에도 회장 선임 절차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에도 BNK금융은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내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추진하던 중 금융당국의 시정 지시를 받아 이를 번복한 바 있다.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

/양승진 기자 asj1231@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유망/일반

사업목적 중소기업 간 업종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촉진 도모

사업내용 각 사업은 3단계(사전준비-현지파견-사후관리)로 구성하되, 사전준비 및 현지파견단계는 필수 진행

사업기간 [유망] 2026년~2028년
[일반] 2026년 1월~2027년 3월

사업규모 [유망] 00개 내외 / [일반] 00개 내외
* 선정규모는 추후 최종확정

신청자격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 수출유관기관 등

지원분야 및 내용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지 원 항 목 전시·상담장 부스 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경비 지원
* 추진단계별 70% 이내 지원

선정 및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 서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최종지원사업 선정

접 수 기 간 2025. 10. 10(금)~10. 24(금) 18:00까지

신 청 방 법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모집공고 참조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공지사항)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
02)2124-3292, 3294, 3295

구 분	지원대상	비 고
해외 전시회	유망	2026년 개최 전시회
	일반	2026년 개최 전시회 2027년 1분기 개최 전시회
수출상담회	2026년 개최 상담회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전동화·로봇·UAM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

산업의 최전선



국내 완성차 업계 만형인 현대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면서 고용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다방면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 총 414만1791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등 생산유발 효과로는 국내 주요 산업 가운데 가장 크다. 또 수 백만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점유율 확대를 위한 현대차의 현재와 미래 전략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생산거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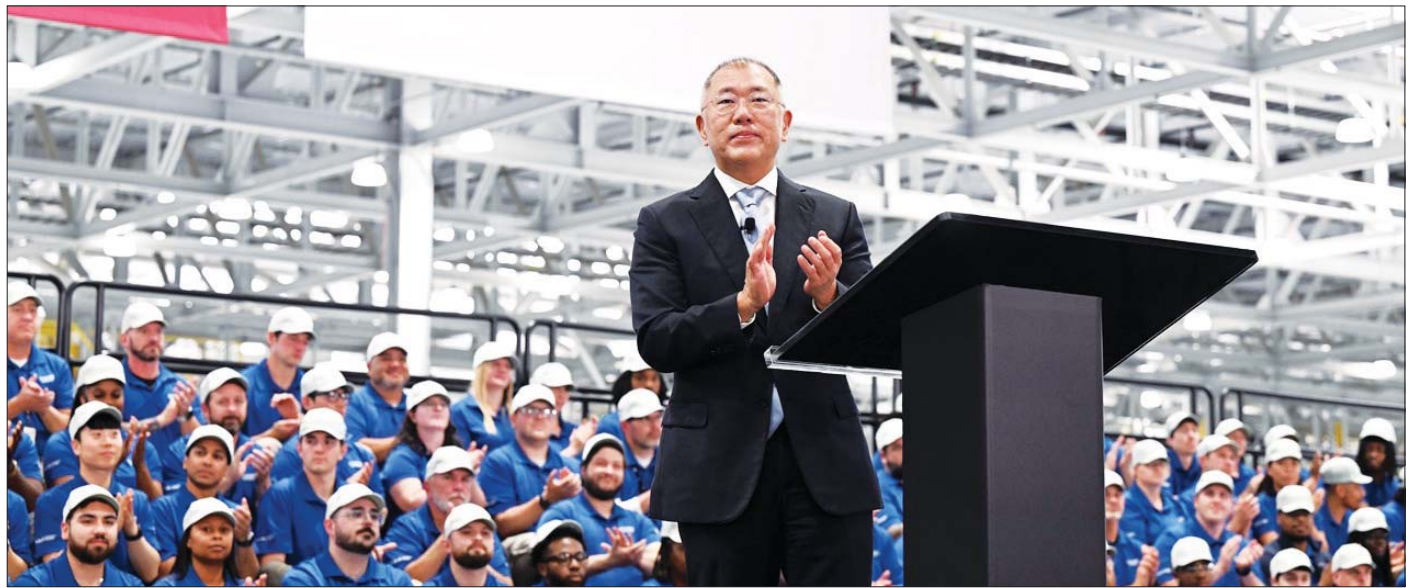
현대차는 연간 약 141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울산 공장(세계 최대 규모)을 중심으로 아산 공장(쏘나타·그랜저 등 연간 30만대 승용차 생산), 전주 공장(상용차 전문 생산기지)을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 거점은 미국의 앨라배마(쏘타나·엘란타르)와 조지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아이오닉 5 생산·연간 30만대), 인도 푸네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체코,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총 414만1791대(국내 70만5010대·해외3436781대)를 판매했다. 올해는 국내 71만대, 해외 346만4000대 등 총 417만4000대의 판매 목표를 잡고 글로벌 생산 거점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거점 확대와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아반떼와 i30를 주로 생산했던 울산3 공장은 하이브리드 주력 생산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울산 1·5 공장에서 생산했던 코나와 투싼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울산 3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또 2026년 1분기 완공을 앞둔 현대차 울산 신공장에서 연간 2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북미 특화 신형 픽업트럭을 출시할 방침이다.

아산 공장 역시 친환경차 흐름에 맞춘 투자를 단행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유럽·아시아 등)에 출시하는 아이오닉 9를 생산하고 있다. 이 차량은 올해 2월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1만5000대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아산 공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외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앨라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경유·CNG(압축천연가스) 버스를 생산해온 전주 공장은 기존 생산 라인을 축소하고 전기·수소버스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상용차 부문에서도 ‘친환경 풀라인업’을 구축하고 친환경 버스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글로벌 생산 거점도 친환경차 생산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으로 구축한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연간 생산능력을 30만대에서 오는 2028년까지 50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울산·아산·전주 친환경거점 재편 하이브리드 중심 생산효율 제고 글로벌 생산망 전동화 재정비 사우디 투자로 해외 거점 확대

또 글로벌 생산 거점을 통한 현지 맞춤형 전기차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유럽,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의 특성에 맞는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와 경형 전기SUV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현지 생산을 확대해 관세 등 외부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CKD(반조립제품) 생산 거점도 확장해 25만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해 신형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대전환

현대차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스마트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남양연구소에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내부적인 역량 개발과 함께 모셔널과 웨이모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외부에서의 기술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웨이모 시스템을 적용한 아이오닉 5(레벨 4 예상)를 내년부터 시장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에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후 로보택시, 로보셔틀 등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차량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스마트 디바이스’로 진화시켜, AI를 기반으로 한 음성 비서, 차량 내 결제, 맞춤형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후 자율주행로봇 ‘달이 달리버리’와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엑스블 솔더’를 선보이며 로봇 내재화에 속도를 내왔다. 올해부터는 아틀라스를 실제 공장에 투입해 생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AI 기업과 협력해 제조 전 공정에서 로봇을 활용하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자동차 부품 선택과 운반, 조립, 검사까지 로봇 기술이 확산되면서 업계에서는 ‘로봇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대차 역시 아틀라스 투입을 계기로 테슬라와 피규어AI 등과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래 항공 모빌리티(UAM)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내 UAM 법인 슈퍼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8년까지 UAM 기체를 개발해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최고경영자(CEO)는 “로보틱스는 수익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도구”라며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작업을 대체해 직원 안전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77조3000억원 투자... 제품 가치 높인다

현대차는 올해 2026~2030년 5년 간 7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2030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8~9%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현대차는 우선 올해 초 제시했던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실적 예상치)’를 수정했다.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올해 초 제시한 3.0~4.0%에서 5.0~6.0%로 2%포인트(p) 상향했다. 그러나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기존 7.0~8.0% 대비 1%p 하향한 6.0~7.0%로 설정했다. 올해 투자 계획도 기존 제시한 16조9000억원에서 16조1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자율주행·AI기반 모빌리티 고도화 로봇 투입 통한 공정 혁신 가속화 UAM 상용화로 신시장 진출 본격화 77조 투자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현대차는 향후 5년(2026~2030년) 동안 연구개발(R&D) 투자 30조9000억원, 설비 투자(CAPEX) 38조3000억원, 전략투자 8조1000억원 등 77조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로 불확실성을 타개하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지화와 전략 실행과 SDV,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 예정이다.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투자도 적극 추진한다. 현대차의 미국 투자 금액은 기존 11조6000억원(88억 달러) 수준에서 향후 15조3000억원(116억 달러)으로 3조 7000억원(28억 달러)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미국 투자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지 생산 확대와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해 올해부터 4년 간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했던 210억 달러 대비 50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현대차는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를 ▲2025년 6~7% ▲2027년 7~8% ▲2030년 8~9%로 설정했다.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중심 판매 믹스 개선, 지속적인 현지 생산과 소싱(조달) 최적화 등 현지화 전략, 하이브리드와 EV, SDV 원가 경쟁력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LEEUM
In partnership with
KB Financial Group

세상을 바꾸는 금융

리움미술관 현대미술 소장품전 전시 후원
사진 이한구, 사진 제공: 리움미술관

KB ART GALLERY

Kiaf SEOUL | KB금융그룹

문화가 꽃 피는 나라
희망이 자라는 대한민국

K-팝부터 K-무비까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그 주인공인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Kiaf SEOUL, 리움미술관 후원에 이어
전국 45개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3번째를 맞는 '문화의 날'
세계 속 문화예술이 꽃 피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금융 KB가 힘이 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iaf SEOUL 2024, 2025 리드파트너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KB금융그룹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이화영·국자원 등 공방

국정감사 2일차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뽕뽕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뽕뽕한 한 채로 물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집값상승 따른 세제개편 질문에 구윤철 “세금으로 수요 억압 아닌 공급 늘려 적정 가격 유지 방침”

이화영 진술 회유 시도 의혹에 野 “공소 취소 빌미 만드려는 것”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국자원 화재 큰 불편 끼쳐 송구… 복구에 최선”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에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마치고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쳐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검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검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검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과 ‘양극화 완화·자영업 부채탕감’ 논의

李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만나 ‘디지털 토크 라이브’ 정책 간담회 진행
국가 산업경제 전환으로 자영업 경쟁 ↓
금융문제, 지금보다 개혁적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과 만나 “사회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 패널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방송인 홍석천씨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최별 로컬 기획자, 이창길 ‘개항로 프로젝트’ 대표 등 핵심 패널 4인과 국민 패널 110여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김동환 삼프로TV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 위기와 관련해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자영업이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자영업 내의 경쟁을 줄여야 한다. 망하면 그 자리 가서 또 망하고, 개미지옥 같은 느낌을 줘서 안타깝던데, 국가 산업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경제)과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신속하게 탕감한다”며 “(부채를 신속히) 정리해 버려야 목은 발 검불을 걷어 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밟으면 죽을 때까지 쫓아 다닌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연 10%가 넘는 최저 신용자 대출금리와 관련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다 감당하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금융이 못 갚을 확률이 높은 집단을 신용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자를 더 많이 내게 한다”며 “그게 자본주의와 시장 논리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대출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하위) 10%에 속하더라도, 그중에 80%는 다 갚는다”며 “그렇게 분류했다는 이유로 이자를 십몇 퍼센트씩 내

는데, 값은 사람이 무슨 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출금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정책 판단의 문제”라며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한번 구렁텅이에 빠지면 다시 못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못 갚은 사람을 탕감하거나 이자를 깎아서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열심히 잘한 사람 이자 깎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자영업 안하고 돈 안빌린 분들은 ‘나는 안 빌렸는데’하는 저항감도 있다”며 “이 부분을 국민이 용인해 주시면 (자영업자들의) 부채 청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총 3만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1만7062건, 44%)를 중심으로 다뤘다.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국민 관심이 높았던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핵심 민생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서예진 기자 syj@

“정보 왜곡 통한 부동산 시장교란·비정상 가격 막아야”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오늘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 확대 등 검토
시장 감독조직 만들어 교란요인 차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 아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폭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게 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과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지하철 지연, 男 난임 등 디테일 보장 설계 경쟁

보험사, 일상 리스크 빈틈 공략
올해 배타적 사용권 38건 획득

삼성화재, 지하철 지연 첫 보장
DB손보, 펫 행동교정영역 실손화
신한·한화, 환율·난임 독창 설계



첫 GPT가 생성한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이미지.

보험사들이 올해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보장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 심의 기준(독창성·유용성·진보성)에 걸맞는 디테일 설계로 ‘생활·환리스크·의료’를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들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38건으로 집계됐다. 생보업계가 9건, 손보업계가 29건을 차지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부여되는 독점 판매권이다.

우선 손보에서는 ‘생활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룬 2건이 눈에 띈다.

삼성화재의 ‘수도권 지하철 지연보험’은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될 때 택시·버스 등 대체교통비를 월 1회, 최대 3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 1400원으로 1년 보장을 제공한다. 업계 최초 콘셉트로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얻었다. 해당 상품의 핵심은 ‘원스톱 자동보상’이다. 승차차 기록과 지연 정보, 대체교통 영수증을 데이터로 연결해 청구를 자동 처리하는 구조를 구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20년 특허도 확보했다. 수도권에서 ‘30분 이상 지연 경험자 연 26만명’에 달한다는 배경 통계는 생활밀착형 보상 니즈를 설명한다. 티머니와의 제휴로 앱 내 간편 가입까지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 지하철지연시 대체교통수단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며 “사회적 편의 증진과 보험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끄는 혁신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DB손해보험은 펫보험 최초로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받았다.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담보는 반려견이 개물림사고를 내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행동교정 훈련비를 실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훈련 유형(1대1·그룹·가정방문·위탁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보장=치료비’라는 기존 펫보험의 틀을 재발 방지·케어로 확장했다.

해당 담보는 DB손해보험이 올 한 해

펫 영역에서 이어 온 연속 히트의 정점이기도 하다. 1월엔 보호자 입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을, 4월엔 개물림 사고 벌금 보장을 도입해 책임보장을 넓혔고, 5월 행동교정 훈련비 담보로 ‘의료비→행동 교정’까지 보장 단계를 한 칸 더 전진시켰다.

DB손해보험은 “개물림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훈련 등)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존재하나 보장공백이 발생한다”며 “행동교정훈련 보장을 통해 이상행동 케어 영역까지 펫보험의 건강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생보에서는 ‘환리스크’와 ‘남성 난임’이란 빈틈을 파고든 2건이 주목된다.

신한라이프의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은 고객이 미리 정한 지정환율에 따라 지급일 환율이 기준 이상이면 원화로 연금 지급, 미만이면 달러로 거치(이자 포함)하도록 자동 전환되는 구조다. 연금지급 D-1(전날)까지 지정환율 변경이 가능해 환율 전략을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앱 기반으로 설정·관리하는 사용성도 강조된다. 배타적 사용권은 6개월을 부여받았다.

한화생명도 남성 특화 3종으로 보장의 균형을 크게 당겼다. 전립선암 진단·치료에 활용되는 PSMA PET 검사비, 난임 정자채취 지원, 특정 남성 난임 수술을 급여 기준으로 직접 보장하는 구성으로, 여성 중심이던 난임 보장의 공백을 메웠다. 배타적 사용권 6개월을 받았고 남성 난임 보장을 의료 행위 단위로 끌어내려 실제 치료과정의 비용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화생명은 “난임과 관련된 지원은 국가 및 민간의 ‘여성위주’ 지원으로 발전해왔으나, 남성 난임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제한적”이라며 “업계 최초 남성의 난임 보조생식술 관련 정자채취 급여의료행위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을 이사철, 수도권 전세난 우려 확산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물량은 줄고 전세가 가격은 계속 오르면서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14일 부동산 데이터기업 아실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30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은 4만86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304건) 대비 21.9%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8406건에서 2만3961건으로 15.6% 줄었고, 경기도는 2만8966건에서 2만717건으로 28.5% 감소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인천도 4932건에서 3962건으로 19.7% 줄었다.

전세 물량이 줄자 전세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주간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8% 올라 33주 연속 상승했다.

/전지원 기자

한 돈에 82만원… 금값 연일 사상 최고가

美 섀다운 불안·금리 인하 기대감
‘안전자산’ 금 현물 한달새 40% ↑

계속되는 금 수요에 국내 금 가격이 한 돈에 82만원을 돌파했다. 국제 금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온스당 4100달러를 넘겼다. 미국 내에서 ‘섀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이 장기화할 조짐이 본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도 금 가격을 끌어올렸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금 현물은 전일 증가(20만9660원)보다 10240원(4.88%) 오른 그래프(g)당 2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돈(3.75g)에 해당하는 가격은 약 82만5000원이다. 국내 금 가격은 전일에도 4.9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20만원을 넘겼는데, 하루만에 21만원을 재돌파한 모습이다. 지난달부터 국내 금 현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달 초와 비교한 가격 상승률은 40.1%에 달한다.

국제 금 가격의 상승세도 매섭다.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거래에서 12월 인도물 국제 금 선물 가격은 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4133.0달러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132.60달러(3.31%) 급등한 수준으로, 국제 금 가격은 지난 7일 사상 최초로 온스당 4000달러를 넘긴 지 6일 만에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금 가격은 이달 들어만 사상 최고가를 6번 경신했고, 지난해 말 가격인 2641달러와 비교한 가격 상승률도 56.49%에 육박한다.



서울 종로구 골드팡 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미 연방정부의 섀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2026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이어지면서다.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국가 안보, 치안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돌입했다.

당초 미국 내에서는 섀다운이 2주 내에 종료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14일(현지시간) 타협 가능성에 선을 긋는 등 교착 상황이 계속되면서 섀다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건강보험 요구를 철회하고 정부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면서 “(이번 섀다운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섀다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금값 상승을 지지

하고 있다. 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금 가격은 통상 금리 하락기에 상승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금리 선물시장은 미 연준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98.34%로 사실상 확신하고 있다. 금리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25bp(1bp=0.01%p)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연일 지속된 만큼, 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폴 시아나 시장분석가는 “역사적으로 금 가격은 라운드 넘버(다수의 0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 금 가격은 2024년 들어만 약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금 가격은 거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4분기에는 보험세가 이어지거나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직접 공급’ 현실성 논란… 2029년 부채 300조 우려

2025 국토위 LH 국정감사

사의 표명한 이한준 LH 사장 출석
공공택지 매각 중단에 수익원 붕괴
정부 재정지원 없인 추진 ‘역부족’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직접 시행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행을 위한 제정과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수익 보전 구조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LH의 부채 규모가 오는 2029년이면 300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LH의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인해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중 LH가 담당하는 물량이 55만6000호(41.2%)다.

이 사장은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업 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재정 부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미 LH의 부채는 160조원 규모로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222%에 달한다. 기존 사업구조로도 오는 2029년에는 26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던 상황이다.

이 사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2029년 LH의 부채가 300조원에 달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늘어나는 공급량이 5만 3000호로,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해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답은 정부의 재정 투입밖에 없지만 이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장은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는 달성될 수 있지만 LH 입장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다음달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안상미 기자 smahn1@

美·EU·아시아發 통상압박 확산 철강업계, ‘보호무역 경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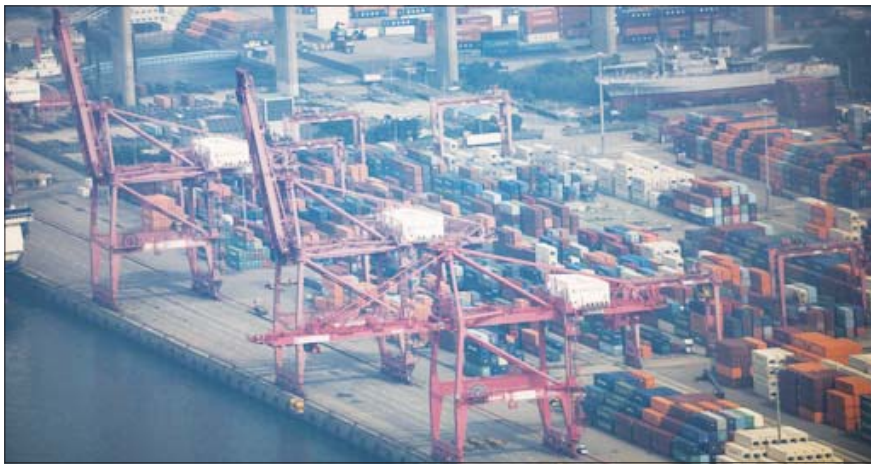
포스코·현대제철, 美관세 4000억
고율관세 여파로 수익성 급락 비상
EU 철강쿼터 축소·관세를 상향 추진
내년 CBAM 시행… 비용 압박 가중
말레이·인도·튀르키예 반덤핑 확산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에만 미국에 약 4000억 원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의 수입규제까지 겹치며 철강 산업 전반에 글로벌 보호무역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업계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미국에 총 2억 8100만 달러(약 4000억 원)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율이 25%였던 지난 3~5월에는 각각 1150만 달러, 1220만 달러, 3330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6월부터 50%로 상향되며 납부액이 426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익 구조를 보면 타격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5100억원, 현대제철은 1018억원으로 합산 약 6000억원인데 연간 관세 부담이 4000억 원에 달한다. 이익의 65% 이상이 관세로 소진되는 셈이다. 특히 철강 수출은 계약에서 선적까지 3~4개월이 걸려 하반기부터 고율 관세가 반영된 물량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수익성 하락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도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EU는 무관세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



지난 2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뉴시스

기에 내년부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본격 적용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에 추가 비용이 부과돼 한국 철강의 유럽 수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아시아 주요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포스코 11.66%, 현대제철 8.97%의 반덤핑 임시관세를 부과했고, 인도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열연강판에 12%의 임시 세이프가드 관세를 적용 중이다. 튀르키예 역시 아연도금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며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현지 생산확대를 통한 관세 회피와 고부가 제품 강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지 생산 확대와 시장 다변화로 수익성 방어에 나선다.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합작 투자와 인도 일관제철소 추진으로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이고, 유럽 신규 시장 공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구조 재편도 병행 중이다. 조선·건설 등 주요 수요산업과의 납품 단가 조정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현지화에 속도를 낸다. 총 58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고 오는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한다. 완성차 공장 인근에 제철소를 두어 현대차·기아 등 계열사에 안정적으로 강판을 공급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통상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미·EU 간 협상 강화와 함께 금융·세제·수출보험 등 단기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중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통상 협의 강화와 수출보험·금융·세제 지원,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 기술 투자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현지 생산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정부는 조속히 각국과의 협상에 착수하고, 기업은 제품 다변화와 프리미엄화를 통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관세·무역 분쟁’ 등 글로벌 위기 해법모색

재계,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

관세·AI·미래차 등 글로벌 위기 논의
한화·LG화학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모인다. 미국발 관세 부과와 미중 무역 분쟁 등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이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회 TED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자리를 찾는다.

TED는 한미일 3국 정·재계 주요 리더들이 모여 상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해 3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우드로윌슨센터와 허드슨연구소, 21세기정책연구소, 인도-태평양포럼, 동아시아재단 등 글로벌 싱크탱크 5곳이 공동 주관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후원사로서 관세 리스크 해소와 수소·전동화 등 미래차 분야의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일본 재계와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메인 행사는 15일 열리는 세미나로 한미일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관계자 약 100명이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글로벌 위기 대응 방안 마련과 함께 일본 내 현대차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토요타그룹과의 협력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과 토요타그룹은 수소·로봇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향후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부품으로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 회장은 올해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장 등 주력사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와 오픈AI, 오라클이 발표한 500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대규모로 공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회사를 대표해 일본을 찾은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미국과 일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AI 기반 한국형 안전문화 세계로 확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참석

“전 구성원이 재해예방 주체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세계 철강업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들과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 혁신의 주체가 되는 선진 안전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장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포스코그룹, 타타스틸, 일본제철 등 글로벌 철강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장 회장은 주요 철강사 대표들과 ▲세계철강협회 안전보건방침 ▲기후대응 전략 및 탈탄소 전환 ▲탄소 배출량 할당 방식의 국

제 표준화 ▲알루미늄에 대응하는 차세대 철강 차체 솔루션 개발 등에 관한 협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장 회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협력사들을 포함한 현장 직원 모두가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 등 한국형 안전(K-Safety)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다음날인 지난 13일 열린 회원사 회의에서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모전은 세계철강협회가 매년 회원사의 안전 우수활동 사례를 공모받아 시상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올해 ‘고로 풍구 영상 기반의 AI 스마트 기술’로 공정안전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노후선교체·규제강화에 피더선 시장 급성장

피더선 시장 2035년 63억달러 전망
HD현대미포, 신선헤 설계기술 강화
올해 21척 수주, 중형조선 도약 기대

글로벌 피더선 시장이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높은 노후선 비중이 수요 확대를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HD현대미포를 선두로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사업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영국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피더 컨테이너선 시장은 약 27억40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연평균 8.7% 성장해 오는 2035년에는 63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선대의 약 30%가 20년 이상 된 노후선인 데다 국제해사기구(IMO) 탄소 배출 규제 강화가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유럽을 중심으로 단거리 물동량이 늘고, 해운 운임 상승도 시장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피더선은 통상 3000TEU 미만급 선

박으로 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하지 못하는 지역 항만과 허브항을 연결한다. 별도의 대형 터미널 시설 확충이 필요 없어 활용성이 높아 올해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 전체 신조발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피더선 발주는 오히려 급증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상하이메탈스마켓(SMM)은 클락슨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3000TEU 미만 피더선 신규 발주량이 126척으로 2023~2024년보다 78% 늘었다고 전했다.

국내 연구기관도 피더선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상선은 대형보다는 중·소형 비중이 크며 국내 중형 조선업에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HD현대미포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회사는 독자적인 피더선 선행 설계를 통해 선체 저항을 줄이고 추진 성능을 강화해 최대 20%의 연료 절감 효과를 구현했다. 친환경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를 바탕으로 선

사들의 발주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만 21척의 피더 컨테이너선을 수주해 지난해(6척) 대비 큰 폭으로 늘렸다. 현재 공식적으로 집계된 글로벌 피더선 총 발주량 123척 가운데 HD현대미포가 21척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다른 중형 조선소들도 시장 진출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대한조선은 과거 1000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인도한 경험이 있고, HJ중공업은 지난 2022년 10월 2000TEU급 컨테이너선 선형을 개발해 영국 로이드선급의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양사 모두 현재 관련 수주는 없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진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수요 상황과 경제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조선소들의 기술 수준은 피더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조선소와 차이가 없지만 시장성·채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확대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피더선 시장이 예측대로 활기를 되찾는다면 국내 조선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유혜은 기자

HD현대일렉트릭, 중저압차단기 UL 인증

2034년 시장규모 292억달러 전망

HD현대일렉트릭이 UL 인증을 획득하면서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고도보를 마련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기중차단기(ACB) ▲배선용 차단기(MCCB) ▲진공차단기(VCB) ▲전자개폐기(MC)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과 cUL(캐나다 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

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도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품의 경우 북미 시장 내 유통 및 납품 과정에서 UL과 cUL 인증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중저압차단기 시장을 지난 2024년에 122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4년에는 292억 달러 규모로 2.4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한성숙 “‘벤처강국 대책’ 내달 발표… 수출바우처 조기집행”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5 국정감사

한 장관, 산업 생태계 활성화 강조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 2배 확대
“매년 1000명 이상 청년 창업가 발굴”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오는 11월 말에 발표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11월 말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도 용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대책이)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다.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민간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AI·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연금급과 퇴직연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인하고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2배 확대하겠다”면서 “스타트업이 성장과정에서 법

률, 세무, 경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를 언급하면서 “동반성장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 플랫폼의

태도를 볼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계약의 자유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률을 제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앱 호출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택시·타็กซี่는 건당 평균 보험료 1070원 가운데 600원을 중소 유선콜 업체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회사는 470원을 챙긴다.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카카오택시·타็กซี่가 맺은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권고 및 부속사항’에 있는 내용(대기업 제휴콜에 대해 유선콜 업체 소속기사가 콜을 수행해 대기업의 보험비가 절감될 경우 절감보험비의 일부를 유선콜 업체와 공유한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가 가장

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기업들을 보니 수출바우처 사업에 988곳 중 170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기업은 272곳으로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거대 유통업체의 기술탈취 문제도 거론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이소의 화장품을 예로 들며 “한 쪽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고 하나는 대형유통사 다이소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이 고생해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다이소가 1000원에 판다. 이런 기술탈취라기 보단 양심탈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글로벌 전장환경 급변… K-방산, 무인기 등 독자기술 승부수

현대로템 ‘K-3’ 시제 개발 착수
대한항공 정찰용 무인기 감항 인증
한화 내년 터보프롭 엔진 출고 목표

국내 방산기업들이 차세대 무인기와 항공엔진의 독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비행 기술의 고도화로 전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무인 전력화가 방위산업의 새로운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무인기 기술은 단순한 정찰·자폭 임무를 넘어 고고도 장기체공 정찰과 원거리 타격 등 복합 임무 수행 체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전장 환경이 정밀화·고도화되면서 엔진과 항전장치,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성능이 전력 효율과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독자 기술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유무인복합 전차 ‘K-3’ 시제 개발에 착수했으며, LIG넥스원은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블록-I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탐재



대한항공이 개발한 전술급 무인기 KUS-9. /뉴스시스

중량 40kg급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 시스템 ▲다목적 무인헬기(MPUH) 등 다양한 드론 기술을 개발 중이다.

대한항공은 소형 드론부터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 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을 자체 개발해 군 및 지자체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사단 정찰용 무인기는 국내 최초로 감항 인증을 획득했으며 부품 국산화율이 95%에 달해 해외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국내 방산업계가 핵심 부품의 자립화

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무인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항공용 장수명 터보팬 엔진(5500파운드급)을 개발 중이다. 내년 초 시제 1호기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완제 엔진이 완성되면 무인전대기, 무인정찰기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한화는 차세대 중고도무인기(MUAV) Block II 탑재용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데 내년엔 시제 1호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공 시 KT-1 훈련기 등 다양한

유·무인기에 장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 경험을 토대로 1만파운드급 대형 엔진 개발도 검토 중이다. 팬 크기를 확대해 바이패스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향후 스텔스 무인기 등 대형 무인기에도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방산업계가 무인기 개발과 무인 전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글로벌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기술 수준은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기업은 여전히 수입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무인기 기술은 단기간에 격차를 좁히기 어려운 분야”라며 “꾸준한 연구개발(R&D)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해외 협력을 통한 기술 내재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속도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술 성숙도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협력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부 9월 동행축제 매출 6634억

온라인 6307억, 오프라인 327억

9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열린 ‘9월 동행축제’에서 66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6634억원 중 온라인 판매전은 6307억원, 오프라인 판매전은 327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직접 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4856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412억원이 각각 판매됐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동행축제·코리아세일페스타·듀티프리페스타 등 기존의 할인 축제를 통합해 대규모 국가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쇼핑·여행·문화 다채로운 소비 혜택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숙면매트 사계절 TV 광고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숙면매트 2종 광고 공개

경동나비엔이 ‘숙면매트 사계절’ TV 광고 및 디지털 광고와 ‘숙면매트 카본’ 디지털 광고를 새롭게 공개했다.

14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새 광고는 ‘기술의 차이가 숙면의 차이’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배우 마동석의 유쾌한 연기로 풀어내며 AI 숙면 솔루션과 정밀한 온도 제어 기술로 숙면을 선사하는 숙면매트의 가치를 전달한다. /김승호 기자

개성공단기업 10곳 중 8곳 “재입주 희망”

중기중앙회 남북경협 관련 실태조사
“중소기업에 새로운 돌파구 될 수 있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10곳 중 8곳은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이 경제협력을 다시 시작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주기업의 절대 다수는 남북경협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를 포함한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남북경협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실제 설문에는 입주기업 55개사를 포함해 200개사가 응답했다.

우선 ‘남북경협 재개시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입주기업의 83.7%가 ‘참여하겠다’고 답해 여전히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주기업은 3.6%에 그쳤다. 다만 비입주기업 중에선 ‘부정적 답변’(아니다)이

50.3%로 ‘긍정적 답변’(그렇다·18.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북경제협력이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입주기업의 90.9%, 비입주기업의 28.3%가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입주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비입주기업 중에선 ‘보통’이라는 평가가 44.5%로 가장 많았다. ‘아니다’(26.9%)는 ‘그렇다’보다 다소 적었다.

‘북한에 대한 투자환경 평가’는 전체 응답기업의 36%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더

유리하다’는 평가는 개성공단 입주사(67.3%)가 비입주사(24.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불리하다’는 입주사(5.5%)와 비입주사(27.6%)의 평가가 엇갈렸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IT업계, 서브컬처에 AI·XR 결합… ‘오타쿠 시장’ 정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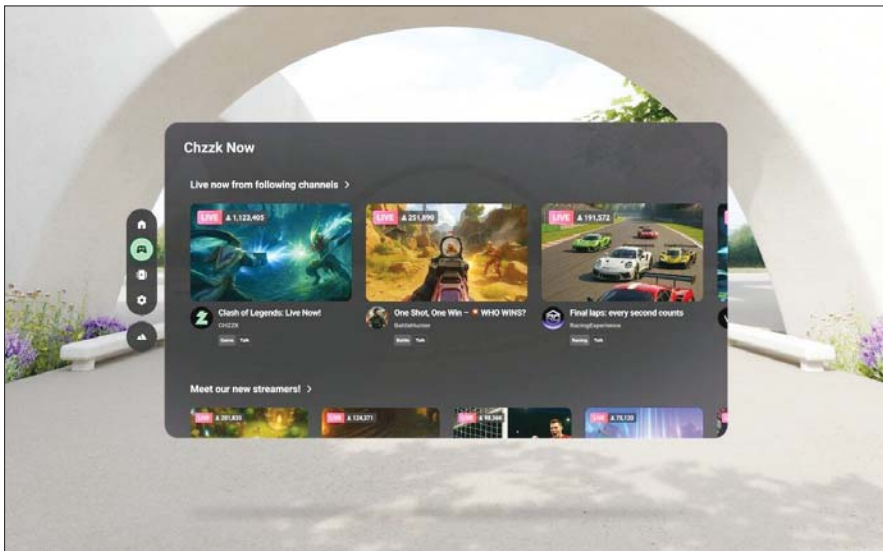
〈무언가에 크게 빠져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어〉

네이버 버추얼 플랫폼 ‘치지직’
XR 기기 특화 버전으로 몰입감 ↑
스캐터랩 ‘제타’, 폭발적인 반응
소셜 챗봇으로 정서적 안정 성과
kt 밀리의서재, 콘텐츠 IP 공략

‘오타쿠(무언가에 크게 빠져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어) 시장’으로 불리던 서브컬처가 IT 업계의 새로운 금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 때 소수 마니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시장의 잠재력이 입증되면서, 각 기업이 자사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네이버는 버추얼 스트리머 플랫폼 ‘치지직’을 확장현실(XR) 기술과 연계해 ‘웹툰 점프’를 노리고 있고, 스캐터랩은 2차원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MZ세대를 사로잡았다. 밀리의서재도 웹툰·웹소설 서비스를 론칭하며 서브컬처 시장 공략에 뛰어들었다.

1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IT 업계가 ‘오타쿠 시장’으로 불리던 서브컬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치지직XR에서 치지직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를 감상하는 화면.

/네이버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네이버다. 네이버는 최근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의 XR 기기 특화 버전인 ‘치지직 XR’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했다. 이는 이달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치지직 XR은 2D와 3D를 넘나들며 눈앞에서 스트리머를 만나는 듯한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하고, 여러 방송을 동시에 탐색하는 ‘멀티뷰’ 기능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네이버의 자신감은 ‘치지직’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치지직은 트위치의 국내 철수와 맞물려 버추얼 스트리머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242만 명을 기록하며 경쟁 플랫폼 ‘썸(SOOP)’을 제치고 국내 1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네이버는 1784 사옥에 3D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모션 스테이지’를 구축하고 버추얼 스트리머들을 적극 지원하는 등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브컬

처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스캐터랩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서브컬처와 성공적으로 결합시킨 사례다. 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AI 캐릭터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서비스로,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200만명, 생성된 AI 캐릭터 150만개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제타’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스캐터랩이 유니스트(UNIST)와 진행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루다 2.0’과 같은 소셜 챗봇과의 정기적인 상호작용이 사용자의 외로움을 15%, 사회 불안을 18%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이는 AI 캐릭터와의 교감이 사용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단순한 놀이를 넘어선 깊은 관계 형성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스캐터랩은 여기에 음성 생성 AI 기술을 더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사용자 몰입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 kt 밀리의서재도 서브컬처 시장의 핵심인 스토리 콘텐츠 분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웹소설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웹툰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며 책과 장르 콘텐츠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스토리

구독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밀리의서재는 ‘궁’, ‘킹스메이커’ 등 이미 검증된 인기 웹툰 작품들을 대거 서비스하는 한편, 자사의 오리지널 웹소설 ‘궁노’를 웹툰으로 제작해 단독 공개하는 등 자체 IP(지식재산권) 확보 및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연내 웹툰 2300권, 웹소설 1만권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독서 인구를 자연스럽게 웹툰·웹소설 팬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IT 플랫폼들이 기술력으로 서브컬처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면, 밀리의서재는 강력한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시장을 섭렵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브컬처는 이제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팬덤 경제로 진화했다”며 “AI, XR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할수록 몰입감과 소비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캐릭터 소비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감정 교류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술력이 감정을 매개하는 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원스토어용 카톡 지원 종료… 이용자 불만 ↑

카카오 “보안 취약 등 고려해 결정
서비스 종료 전 백업·이전 안내 완료”
원스토어 시장 구조조정 일환 해석

카카오가 지난 8월 26일 원스토어 버전 카카오톡 지원을 공식 종료해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백업 기능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일부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원스토어용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종료 이후 앱 실행과 업데이트가 제한되면서, 일부 기기에서는 ‘원스토어용 카카오톡 지원이 종료됐다’는 알람창이 반복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카카오는 “보안 취약성과 기술 지원 한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최신 OS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구글플레이 버전을 이용하면 정상 사용이 가능하

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인해 구형 OS(안드로이드 8.1이하)를 사용하는 이용자나 장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원스토어용 앱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버전과 달리 마켓 내 복원 기능이 제한돼, 일부 이용자는 “대화 백업조차 막혔다” “앱이 열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업 메뉴 비활성화나 이전 실패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서비스 종료 전에는 대화백업과 이전이 가능했다”며 “종료 이후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종료 전에 데이터를 옮긴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종료와 업데이트 중단은 사실이지만, 백업 기능이 즉시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이용자 수가 급감한 원스토어 시장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원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이 2.9% 수준으로 떨어지자, 카카오는 효율적 앱 관리와 보안 강화 차원에서 별도 버전 유지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톡은 각 앱마켓별로 개별 버전을 개발해야 하는 구조라, 이용자 수가 적은 원스토어 버전은 유지비용 대비 효용이 낮았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통신을 넘어 금융·인증 등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앱마켓 단종이 곧 데이터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데이터 이전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 앱마켓 버전 지원을 종료했다”며 “이용자가 데이터 손실을 겪지 않도록 사전 백업과 이전 절차를 충분히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팔란티어 플랫폼 국내 확산방안 논의

韓서 첫 CEO 회동 가져

KT가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한국에서 첫 CEO 회동을 갖고, 사내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팔란티어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KT는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프리미엄 파트너’ 지위에 올랐다. 팔란티어는KT의대한민국AX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우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KT 김영섭 대표와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는KT 광화문 빌딩에서 다시 만나 그간 추진한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국내 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재정비했다.

KT는 알렉스 카프 CEO 방한을 맞아 제2회 ‘AX 리더 서밋’도 개최했다. AX 리더 서밋은 각 산업에서 인공지능



KT 김영섭 대표(왼쪽)와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가 한국에서의 첫 CEO 회동을 진행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전환(AX) 흐름을 선도하는 대기업 경영 리더들과 글로벌 경영 리더 간의 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별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팔란티어 알렉스 카프 CEO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AI 학습에 뉴스데이터 무단 활용 의혹

언론단체, 저작권 침해 소송 나서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공정위 신고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

와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KBS·MBC·SBS) 피해액 총 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뉴스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뉴스 비중이 13.1%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AI 학습과 생성형 서비스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

작권법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이미 5억원을 넘긴 것으로 미뤄 전체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이버를 신고했다. 협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신문 기사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사용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이자 언론사 사업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D2SF, ‘썬머 로보틱스’에 신규투자

비전센서 독자방식으로 구현한 기업

네이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인 D2SF가 미국 머신비전 스타트업 썬머로보틱스에 신규 투자했다. 이번 시리즈A 라운드는 어플라이드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썬머 로보틱스는 네이버 D2SF가 전략 투자자로 참여했다.

14일 D2SF에 따르면 썬머로보틱스는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센서를 독자적 방식으로 구현한 기업이다. 마이크로초 단위로 빛의 반응을 감지하는 레이

저 이벤트 센서를 활용해 기존 카메라 기반 센서 대비 4배 빠른 속도, 0.1mm 수준의 초정밀 측정, 그리고 높은 전력 효율과 데이터 처리 성능을 구현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 ‘Kortx’ 솔루션은 제조, 물류, 자동차,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다이내믹 조립, 품질 검사, 부품 핸들링 등 복잡한 공정을 자동화한다. 전통적인 비전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는 비정형 환경에서도 높은 제어 성능을 입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빛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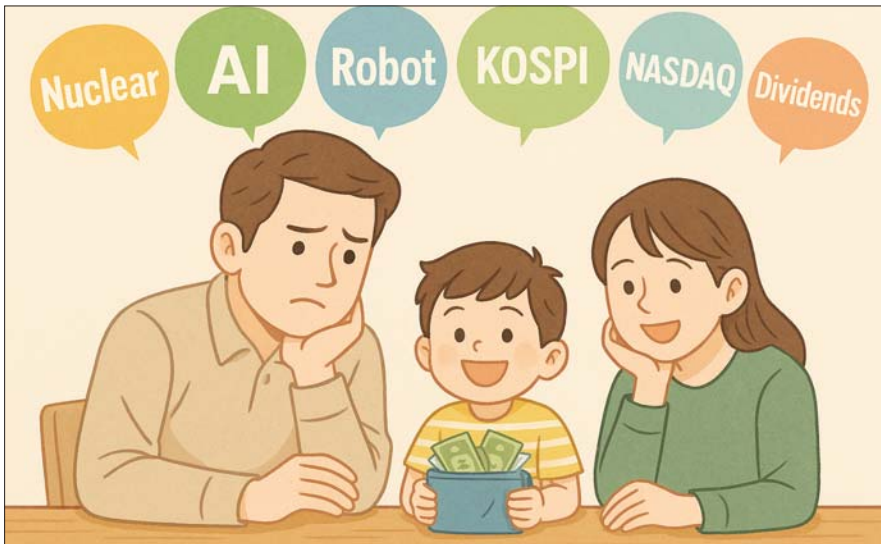
“전력·방산 구조적 성장… ‘꼬마 개미’ 용돈 투자로 딱”

자녀의 첫 ETF 추천

“수익보다 학습의 기회로 삼아야
주식 관찰습관이 투자감각 키워
美 AI·로봇 관련 ETF상품 제안”

“시아머니게서 주식 사주라고 추석 용돈을 (손자의) 증권계좌로 보냈다고 하시네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주부 박모(37)씨는 올해 초 여섯 살 아들 명의로 주식계좌를 열었다. 아들의 세뱃돈 등을 모아 온 예금통장을 해지한 뒤 삼성전자·신한지주·현대자동차 등 우량주와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으로 8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8개월 사이 전체 수익률은 50%를 넘었다. 그는 “쥐 꼬리 이자가 붙는 예금보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 주식과 관련 상품으로 돌아섰다”며 “10년간 잘 굴려서 대학 학비에 쓸 상품을 고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녀들이 모은 용돈을 굴리는 마마·파파개미(엄마·아빠 주식 투자자)



Chatgpt로 생성한 ‘아이 용돈을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하는 부모’ 이미지.

가 늘고 있다. 하지만 50% 수익을 낸 박씨처럼 운이 좋은 경우는 드물다. 안전과 수익 두 토끼를 쫓는 방안은 없을까.

14일 메트로경제는 6개 자산운용사(미래에셋·한국투자신탁·KB·신한·NH아모디·타임폴리오) 본부장에게 ‘자녀에게 사줄만한 ETF’를 추천받았다.

김승철 NH아모디자산운용 본부장은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다고 보다 학

습의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 주식형과 해외주식형을 한두 개씩 골라 직접 관찰하는 습관이 투자 감각을 키운다”고 조언했다. 그는 HANARO 원자력iSelect, HANARO 글로벌피지컬 AI액티브 등을 언급하며 “AI 시대엔 전력과 방산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 테마에 초점을 맞춘 ETF로는

미국 시장의 AI·로봇 관련 상품이 꼽혔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본부장은 “초장기 투자엔 AI 성장 산업이 가장 적합하다”며 SOL 미국S&P500과 SOL 미국AI반도체 칩메이커 ETF를 제안했다.

노아름 KB자산운용 본부장은 “성장엔 인컴(현금흐름)을 더하면 장기 보유가 수월하다”며 RISE 미국휴머노이드 로봇 ETF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를 추천했다.

배당형ETF를 통한 ‘안정적 수익’ 전략도 눈에 띈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성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가져가는 조합이 아이 투자에 적합하다”며 TIGER 반도체TOP10,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를 꼽았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아이의 첫 투자는 잃지 않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KODEX 미국나스닥100,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ETF를 언급했다.

소액 투자라도 꾸준히 쌓이면 의미 있는 자산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

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은 “작은 돈이 모이면 큰 자산이 된다”며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를 제안했다. 김정섭 한화자산운용 본부장은 “단기 유행보다 꾸준히 오를 시장형 ETF가 낫다”며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를 꼽았다.

김남호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본부장은 “요즘은 현금 대신 ETF를 증여하는 부모도 있다”며 “매달 0.5% 수준의 월배당을 지급하는 TIMEFOLIO Korea 플러스배당액티브ETF로 아이에게 ‘저축 이상의 투자 경험’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본부장은 장기 투자할 땐 좋은 주식을 싼값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교육과 돈 굴리는 습관을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본부장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들의 첫 투자는 단기 차익보다 장기 성장성과 안정성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61% 급등… 韓 증시, 신흥시장 투자의 핵심”

프랭클린템플턴

“반도체 중심 기술섹터, 증시 떠받쳐
통신·기술·산업 비중 고르게 분산”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은 14일 한국을 신흥시장 투자의 핵심 국가로 평가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흥시장 주식이 올해 들어 달러 기준 28% 이상 상승하며 S&P500지수(14%)의 2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더 약세, 정책 변화, 선진국 대비 견조한 성장세, 글로벌 자본 흐름 변화 등이 반등을 이끈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23일 기준 한국과 중국 증시가 각각 약 61%, 37% 상승을 기록하며 신흥시장 랠리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글로벌 메모리 칩 수요가 회복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기술 섹터의 반등이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반도체 제조 분야의 선도적 지

위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모멘텀의 핵심 동력”이라며 “상위 3대 섹터인 통신, 기술, 산업이 각각 약 20%의 비중으로 고르게 분산돼 있으며, 금융과 소비재 기업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산업 다각화를 잘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성장축을 갖춘 구조적 강점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산 부문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부상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방산 수출액이 2010년대 초 약 30억달러에서 2022년 173억달러로 급증하며 한국은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에 올랐다. 프랭클린템플턴은 “현재 한국의 방산 역량이 단순 부품 제조를 넘어 전자, 포병, 항공기, 미사일 등 완제품 시스템을 수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선업 부문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메이드 인 아메

리카(Made in America)’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협력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짚었다.

K-뷰티와 K-컬처 등 한국의 소비재 및 문화 수출 역시 한국의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55억 1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을 일시적으로 제치며 프랑스에 이은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오르기도 했다. 더불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의료관광도 한국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분야로 꼽았다.

디나 팅(Dina Ting) 글로벌 인텍스 포트폴리오 운용 총괄은 “신흥시장이 다시 글로벌 성장의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신흥시장 투자 여부보다 어떤 신흥시장국에 투자하느냐가 관건이 됐다”며 “그중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산업, 문화, 헬스케어가 교차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박진호 NH아모디자산운용 주신운용부문장이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시드머니 250억… 정책수혜 상품 준비”

NH아모디자산운용, 기자간담회
“AI·자본시장·친환경 대전환 국면
투자자에 수혜 돌려주는 게 목표”

NH아모디자산운용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대전환에 올라타라”며 새로운 펀드를 내놴. 정부가 코스피5000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지금, AI(AI·자본시장(CX)·친환경(GX) 등 3대 대전환이 불러올 산업 재편의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정섭 NH아모디자산운용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코스피5000시대를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협상호금융,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이 총 250억원의 시드머니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들 자금을 직접 투입해 책임운용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호 NH아모디 주식운용부문장은 “한국은 AX(AI Transformation), CX(Capital Transformation), GX

(Green Transformation)라는 세 축의 대전환 국면에 진입했다”며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기업 성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 투자 분야는 ‘성장주도 산업’이다. AI 반도체 및 인프라, 방산, 조선, 에너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 중 AI 부문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패키징·고성능서버기판(MLB) 제조사, 전력 인프라에서는 변압기·차단기·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 자본시장 선진화 수혜주로는 상법 개정·배당 확대 등 거버넌스 개선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대기업 지주사와 계열사들을 꼽았다.

NH아모디운용은 이번 펀드의 강점으로 ‘팀 기반 액티브 운용’을 내세웠다.

박 부문장은 “리서치와 운용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전환의 수혜를 투자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잔고 50조 돌파

투자 평가이익 15조 달해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의 해외주식 잔고가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말 4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이뤄낸 기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거둔 것이 핵심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10일 기준 해외주식 잔고 51조8000억원 가운데 고객들이 투자를 통해 거둬들인 평가이익(세전)이 15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올해만 해도 8조원 이상의 고객 수익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성과를 기반으로 한 해외 자산 증대의 선순환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기술주가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는 등 글로벌 투자환경이 변화하는 데 발맞춰 중국 혁신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글로벌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한 것이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홍콩 항셍테크는 연초 이후 44.8% 급등해 미국 나스닥 상승률

(19.2%)을 크게 웃돌았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2% 이상 변동한 종목 등을 자동 선별해 관련 뉴스를 요약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이슈체크’ 등 AI 설루션과 디지털 자산관리 인프라를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고객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자평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에서의 고객 성과는 미국 중심 투자를 기반으로 중국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산배분과 AI 자산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기업과 성장 시장을 반영한 자산배분 전략을 지속 확대하며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전, 베트남 원전 교두보 마련 인력·재원·현지화 협력 본격화

베트남서 원전 워크숍 개최
인력양성 협력 본격 시동
‘한국형 모델’ 노하우 공유
닌투언 원전 수주 초석 다져
탐코리아 수출전선 확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베트남 원전 수주를 위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본격적인 협력 행보에 나섰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9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PVN과 공동으로 ‘베트남 원전 인력양성 협력을 위한 공동위킹그룹(JWG)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쩌 람(Tran 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한전·PVN 간 원전분야 인력양성 업무협약(MOU)’의 후속조치로, 한국의 원전 인력양성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인력양성 목표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측에서는 한전을 비롯해 한수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 본사 전경. /한전

원,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에너지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탐코리아가 참여했으며, 베트남 측은 PVN을 중심으로 산하 대학과 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양국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40명이 머리를 맞댔다.

베트남 정부는 2035년까지 닌투언-1·2 원전을 건설하고, 2050년까지 총 8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약 4000명의 원전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번 워크숍에서 탐코리아는 한국의 축적된 원전 교육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베트남 측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한전은 현지화·재원조달·인력양성 등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한전은 워크숍 이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원전 담당 부국장과 PVN 부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향후 한전의 베트남 원전사업 참여 방안과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 해외원전개발처장은 “한전은 베트남 원전사업 인력양성 MOU를 시작으로 현지화, 재원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베트남 원전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 시대 초석 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전력·산업·수송 전 분야 탈탄소
기후재난 대비 범부처 대응 강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개편’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5년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사실상 1.5도를 넘었다면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초반에는 450ppm을 넘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지구온도가 2도를 넘으면 세계경제가 붕괴하고 3도를 넘으면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체계가 붕괴할 것이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 경고한다”며 “탈탄소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경제구조부터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올해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8.2대 1 ‘치열’

농식품부, 10월 중 6개 군 최종 선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대상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선정 규모(6개 군 내외)와 비교하면 8.2대 1의 경쟁률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선정된 6개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

치단체 모두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농어촌 정책·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평가 과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SK그룹, 중소기업에 특허 77건 무상이전

산업부-SK, 기술나눔 행사 개최
통신·스마트의료 등 핵심기술 공유

SK그룹이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77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년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를 열고, SK그룹 5개 주요 계열사와 기술나눔 수혜기업 5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이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등 SK그룹 계열사들이 참여했으며, 총 62개 중소·중견기업에 77건의 특허가 이전된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개방해 산업생

태계 전반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SK그룹의 기술나눔은 2014년 SK하이닉스에서 시작돼 2021년 그룹사 차원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259개 기업에 392건의 특허를 무상이전했으며, 이번 행사로 누적 수혜기업은 300개를 넘어섰다.

올해 나눔 대상 기술은 통신, 반도체, 화학·소재, 스마트 의료 분야에 집중됐다. 대표 기술로는 SK텔레콤의 ‘생체인증 기반 전자처방 서비스 인증 시스템(특허 10-1746163)’이 꼽힌다. 이 기술은 환자의 지문이나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종이처방전 사용에 따른 처방 오류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결합 자동분류 시스템(특허 10-2483787)’, SK실트론의 ‘슬러리 재생장치(특허 10-1105698)’, SK이노베이션의 ‘나노입자 제조용액(미국특허 10479894)’ 등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이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전략 특강과 투자유치 컨설팅도 병행됐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된 SK그룹의 우수 기술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똑똑한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바디워시 피지 세정력 모두 ‘우수’

소비자원, 바디워시 10종 비교 결과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 차이
사용감 ‘쿤달’, 행굼 ‘꽃을든남자’ 최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디워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정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비교한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피부에 쌓인 피지·먼지 제거를 위한 바디워시 품질 평가 결과, 피지 세정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고, 미세먼지 제거력은 6개 제품이 ‘우수’, 4개 제품

은 ‘양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세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은 ▲꽃을든남자(코스모코스) ▲더바디샵(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도브(유니레버코리아) ▲룩시땅(룩시땅코리아) ▲비온드(엘지생활건강) ▲일리운(아모레퍼시픽) 등 6개 브랜드였다.

제품별 사용감 평가에서는 ‘쿤달 허니앰카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더스킨팩토리)’가 전반적인 만족도(3.8점)와 촉촉한 느낌(3.8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굼 정도는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사워(4.3점)’, ‘비온드 딥 모이스처

(4.1점)’ 순으로 높았다.

사워 후 잔향이 많이 남는 제품은 ‘쿤달’, ‘꽃을든남자’, ‘일리운’ 순이었고, ‘룩시땅’과 ‘비온드’는 잔향이 적은 편이었다.

10개 제품 모두 남·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제 함량도 허용기준 이내였다. 용기 내구성도 낙하시험 결과 손상 없이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에서는 대부분 기준에 부합했으나,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워시(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의 표시를 수정했다”고 회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반려동물 학대·중독 대응, 국제공인 첫 인증

검역본부, 수의법의학 검사 공인

반려동물 대상 중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수의법의학 검사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내 최초로 수의법의학 분야 약독물(藥物) 검사 부문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살서제3종(쿠마테트랄릴, 브로디파름, 외파린)에 대한 검사체계를 국제기준(ISO/IEC 17025)에 맞춰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발급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법과학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약독물 검사는 동물의 조직이나 혈액에서 독성물질을 검출해 학대나 중독 여

부를 규명하는 핵심 절차다. 최근 5년간 반려동물 대상 학대·중독 진단 건수는 2019년 79건에서 2024년 131건으로 65.8% 증가했다. 이 중 살서제 중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약독물 검사의 국제적 신뢰도를 갖추게 됐고, 검체 채취부터 분석·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표준화로 진단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동물학대 중독사건 대응의 과학적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예방에 필요한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동물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G 그랜드침대

그랜드침대 매트리스
**편안함이
다르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한 설계로, 깊은 숙면을 선사합니다”

G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경주시, APEC 준비상황 최종 점검

주낙영 시장 “행정력 총동원… ‘국제 회의도시 경주’ 완성”

市, 24시간 현장대응체계 가동
주 시장, 국·소·본부장 회의 개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경주시 주낙영 시장은 13일 2025 APEC 정상회의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전 부서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제는 점검이 아니라 완성의 단계에 와 있다”며 “국가적 행사로서 경주의 품격이 세계 무대에 드러나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주낙영 경주시장이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발언하고 있다.

건의 허점도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숙박업소, 관광지, 식당, 교통시설까지 모든 현장에서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품격이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경주 홍보 대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동궁과 월지 임시주차장 정비공

사를 이달 중 준공하고, APEC CEO 서밋 환영만찬장으로 쓰이는 어울마당 등 주요 시설 보수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국은 행사장 일대 CCTV와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했다.

주낙영 시장은 “행정의 준비만으로는 완전한 성공이 어렵다”며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가 진정한 APEC 개최 도시”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오는 16~17일 APEC 회원국 투자포럼, 18일 경주국제마라톤대회,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및 CEO 서밋 등 대형 국제행사에 대비해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부서별 현장점검을 일일 단위로 강화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영주시가 지난 13일 ‘2025년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영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조직 내 괴롭힘 경험과 대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서는 피해 경험과 유형, 대응 방식, 조직의 대응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예방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직급과 상황에 맞춘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대구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 ‘A’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교육발전특구는 ▲대구시와 9개 구·군이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협의회 활성화 ▲특별교부금과 지방비 1:1 매칭을 통한 재원 확보와 투명한 집행 관리 ▲지역자원 활용 늘봄 프로그램 활성화 ▲IB 프로그램 확산,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디지털 인재 양성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함평군, 여성 건강 증진 팔 걷어

전남 함평군이 전 연령대 여성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로 여성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현재 함평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는 20대 2명, 30대 13명, 40대 16명의 가입기 여성을 비롯해, 50~60대 여성 29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 중이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5대 건강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전문가의 1:1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있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부산시, ‘달맞이공원’ 첫 삽

부산시가 14일 해운대구 중동 일원에서 달맞이공원 조성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달맞이공원은 2002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장기 미집행 상태였지만, 2022년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이 추진되며 물살을 탔다. 2028년까지 3만3427㎡ 부지에 총 공사비 233억원을 투입,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연주의 공원으로 조성된다.

박형준 시장은 “달맞이공원은 생태·경관·문화가 공존하는 자연주의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해운대 관광벨트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안동시, 경상권 문화도시 발전 ‘앞장’ 포항시 “2035년 농식품 수출 500억 달성”

진주시·통영시 업무협약 체결
정책 협력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북 안동시와 경남 진주시, 통영시가 ‘경상권 문화도시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14일 안동시에 따르면 전날 진주시 진주성 중영에서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가 ‘경상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상권 대표 문화도시인 안동, 진주, 통영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문화도시 비전 공유 및 정책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간 문화도시 비전 공유 및 정책 협력, 공동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적 교류, 지역 간 문화기업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 교류, 기타 상호 발전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놀이로 즐거운 전통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전통놀이문화를 재해석한 독창적 문화콘텐츠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동시와 진주시, 통영시가 지난 13일 ‘경상권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허대양 통영부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조규일 진주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영시는 ‘예술의 가치를 더하는 창의문화도시’를 지향하며 음악과 공예 중심 창작 활동과 예술가 지원을 강화한다.

진주시는 ‘문화와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서 세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상권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도시가 각자의 문화적 강점을 살려 상호 협력한다면 경상권은 대한민국 문화정책 중심축이자 지역 문화 균형발전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환 기자 kih9@

딸기 등 전략품목 집중 육성

포항시가 올해를 기점으로 ‘2035년 농식품 수출 500억 원 달성’이라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포항시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경상북도 수출정책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2018년 34억 원에 불과했던 포항시의 농식품 수출은 2025년 8월 기준 89억 원으로 급증했다. 수출 대상국도 일본·미국·캐나다 3개국에서 현재 22개국으로 확대됐다.

포항산 농식품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K-푸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수출 품목도 사과와 토마토 2종에서 딸기·포도·단감·배추·시금치·부추 등 18개 품목으로 다양화됐다.

포항시는 특히 딸기를 전략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 중이다. 상주·

고령과 함께 경북 3대 딸기 수출전문시범단지로 지정해 수출용 신품종 재배 기술 교육과 선별장 설치 등 수출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11월 첫 수출(30톤)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내 딸기 단일 품목으로 50억 원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시는 친환경 인증 확대와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농민과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포항 농특산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시는 수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센터는 지역 농특산품 수출 증대와 영일만항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로 기대되며, 시는 경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국·도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재가동 일정 불투명

노사 임금협상 결렬… 쟁의수위 관건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된 금호타이어 노조가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한 가운데 대형 화재로 휴업 중인 광주공장의 쟁의행위 수위와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합원 3493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6%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되었다.

노조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배수진을 쳤지만, 노사는 이날 교섭을 재개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노조는 올해 단체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함께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

는 반면,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등 현안을 들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사간 갈등에 따라 이달내 예정된 공장 재가동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대형화재로 5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광주공장의 경우 파업은 노조의 협상카드나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업 중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파업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형 화재로 5개월째 공장 가동이 중단된 광주공장은 근로자들이 휴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파업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노사는 조속히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일정대로 이달내 생산재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석보·입암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영양군 사업비 150억 확보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서 석보·입암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유휴시설의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해 농촌 공간의 재생과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주택 전소, 농업시설·농기계·농작물 피해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양군 산불피해 지역의 복구와 생활 기반 재건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임시조

립주택에서 거주 중인 산불 이재민들의 불안정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폐교와 장기 방치시설을 철거하고 임대형 전원주택과 농기계 수리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농업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기능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교류 및 힐링공간을 함께 조성해 정신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3분기 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정체 원가부담 완화 4분기 반등 기대감

식품업체 10곳 3분기 실적

국내 식품업체가 올해 3분기 전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원재료 가격 하락과 수출 호조가 일부 기업의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다만, 내수 소비 둔화가 발목을 잡으면서 수익성 회복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10개 식품업체의 3분기 합산 매출은 16조9132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1628억원)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이익은 1조1740억원으로 0.4%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업체는 올해 들어라면, 과자, 유제품, 음료 등 전 품목에서 2~20%가량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줄며 판가 인상 효과가 실적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CJ제일제당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7조6400억원 안팎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업이익은 3600억~3900억원대로 각각 6~12% 줄어든 전망이다. 추석 선물세트 판매 등 계절 요인과 해외 디저트 공장 손익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ERP 교체 등 일회성 비용과 바이오 부문 부진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CJ제일제당은 사료·축산 자회사 F&C(Feed&Care) 매각을 추진하며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3분기 매출 1조1300억원, 영업이익 75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빙과·스낵 부문이 여름 성수기 효과를 본 반면, 카카오 가격이 톤(t)당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라면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10곳 합산매출 16.9조, 4.6% 증가
영업익 1.2조로 0.4% 증가 그쳐**

**CJ제일제당, 영업이익 하락 예상
롯데웰푸드, 매출액 1.11조 전망
롯데칠성음료, 영업이익 14% 늘 듯**

9000달러 안팎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원가 부담이 지속됐다.

롯데칠성음료는 매출 1조1070억원, 영업이익 890억원으로 각각 4.0%, 1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음료·주류 모두 전분기 대비 회복세를 보이며 원가 안정화 효과가 일부 반영됐다.

풀무원도 미국 두부·냉동김밥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매출 8880억원, 영업이익 3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1.0%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신선식품 부문은 경기 위축 여파로 성장 폭이 제한됐다.

라면업계는 해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호실적이 예상된다. 삼양식품은 매출 6000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5~37%, 50~56%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불닭볶음면’이 미국·중국·동남아 시장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글로벌 히트 브랜드로 자리잡은 덕분이다.

농심도 매출 8800억원, 영업이익 440억원 수준으로 각각 3~4%, 17~23%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일본 등 주요 해외 법인의 가격 인상 효과와 신제품 ‘신라면 톰바’ 흥행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오뚜기는 매출 9419억원, 영업이익 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 증가, 4.9% 감소할 전망이다. 내수 부진과 관측비 증가가 부담이 됐다.

업체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보다 개선됐지만,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완전한 수익성 회복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대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부터는 원가 부담 완화와 수출 확대 효과로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뚜레쥬르, 가맹점 물품대금 카드결제 도입

업계 첫 시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계 최초로 가맹점 대상 물품대금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카드 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결제 편의 방안을 모색하여 뚜레쥬르 가맹점과의 상생 파트너십 강화 및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CJ푸드빌은 전날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양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한카드와 ‘뚜레쥬르 가맹점 납품대금 카드 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뚜레쥬르 가맹점 주들은 납품대금 결제 시 현금 또는 결제 전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어 납품대금을 보다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특히



CJ푸드빌은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뚜레쥬르 가맹점 납품대금 카드 결제 도입을 위해 신한카드와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CJ푸드빌

제도가 도입되면 가맹점주들의 유동성 확보, 결제 방식의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자금 운용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CJ푸드빌과 신한카드는 결제 편의 뿐 아니라 양사 제휴에 기반해 상품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음료 ‘새로’ 3년새 7억병 판매고

부드러운 목넘김에 소비자 호응

롯데칠성음료의 ‘새로’가 출시 3년 만에 누적 판매 7억 병을 돌파했다. 2022년 9월 선보인 ‘새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 슈거(Zero Sugar)’ 소주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소주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하고, 주류 제품 중 최초로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했다. 한국 도자기의 곡선미에서 착안한 병 디자인

인과 투명병 적용으로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출시 4개월 만에 5000만 병, 7개월 만에 1억 병을 돌파한 ‘새로’는 부드러운 목넘김과 향이 달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후 ‘새로 살구’, ‘새로 다래’ 등 과즙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 저변을 넓혔다. 특히 올 7월 기준 누적 판매 7억병을 넘어서며 제로 슈거 소주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국순당, 美 밀러 패밀리 ‘버터넛’ 론칭

국순당은 미국 와인 명가 ‘밀러 패밀리(Miller family)’의 와인 브랜드 ‘버터넛(Butternut)’을 국내 론칭한다고 14일 밝혔다.

밀러 패밀리는 1871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 지역에서 농업과 포도 재배를 시작하며 와인업계와 인연을 맺은 오래 전통의 가문이다. 포도 재배 농가로 다른 와이너리에 포도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2000년대 초중반 자신들이 재배한 좋은 포도로 자체 브랜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밀러 패밀리는 ‘좋은 와인이지만

비싼 가격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철학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제이 월크스, 옴틱, 버터넛 등 12개 가량의 다양한 와인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버터넛은 비엔에이 와인 그룹(BNA Wine Group)이 2012년 론칭했다. 당시 유행한 트렌드인 버터향 풍미가 진한 ‘버터리 사도네이’ 스타일로 만든 와인을 통해 급성장한 브랜드이다. 2020년 밀러 패밀리가 비엔에이 와인 그룹을 인수하면서 밀러 패밀리의 와인 철학을 접목시켜 더욱 큰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신원선 기자

한돈 페스타 간 ‘돼지바’… 레트로 팝업 오픈

롯데웰푸드, 19일까지 ‘돼지바 상회’ 80~90년대 구멍가게 콘셉트 조성

롯데웰푸드는 오는 19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XYZ 서울에서 진행되는 ‘2025 SUPER 한돈 페스타 팝업 스토어(이하 한돈 페스타)’에 참가해 ‘돼지바 상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돼지바와 한돈의 이색 컬래버는 롯데웰푸드 아이스크림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재미있는 티저 영상들로 시작했다. 돼지바의 귀여운 캐릭터 ‘돼장님’이 다른 한돈 돼지들과 다른 모습에 의문을 품고, 이내 한돈 캐릭터 ‘한도니’와 컬래버 계약을 체결하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았다.

돼지바 상회는 1983년 태어난 돼지바의 오리지널리티와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레트로 컨셉의 팝업스토어다. 외부는 레트로 감성에 맞춰 롯데의 옛 로고 입간판, 돼지바 포스터 등 80~90년대 정겨운 구멍가게 콘셉트로 조성했다. 내부에는 돼지바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해 고객들에게 브



‘돼지바 상회’ 방문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습.

/롯데웰푸드

랜드의 깊은 역사를 소개한다.

돼지바 상회를 방문하면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게임존을 설치해 손으로 핸드스텝퍼를 눌러 돼지바 출시년도인 1983의 숫자 모두에 불이 들어오게 하면 추억의 뽑기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돼지바 문구세트, 돼지바 스티커, 돼지바 제품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 게시 인증을 하면 돼지바 3종을 증정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돼지바와 한돈의

이색적인 컬래버레이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돼지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돈 페스타는 10월 1일 한돈데이를 맞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한돈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이벤트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한돈데이는 ‘돼지코’ 모양(1001)을 모티프로 한 한돈의 대표 기념일이다. 지난해 ‘2024 한돈데이 팝업스토어’에는 9일간 1만5000명이 찾았다.

/신원선 기자

오리온, 차·커피 곁들임 디저트 5종 출시

‘카스타드 로얄밀크티맛’ 등 한정판 오리온은 차나 커피에 곁들이기 좋은 ‘디저트 카페 한정판’ 5종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카스타드 로얄밀크티맛’은 향긋한 홍차 잎 원물을 넣은 촉촉한 쉬폰케이크에 진하고 부드러운 로얄 밀크티 크림을 더해 고급스러운 풍미를 구현했다. ‘오프 애플파이맛’은 사과 과육이 살아 있는 아삭한 식감의 사과 콩포트에 시나몬을 더해 깊은 맛을 살렸으며, ‘뉴

통지 카라멜 크롱지맛’은 납작하게 눌러 구운 크롱지의 바삭한 식감에 카라멜 코팅을 입혀 달콤한 맛을 담았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말차 열풍에 맞춰 제주산 말차를 이용한 신제품도 선보인다. ‘초코칩쿠키 제주말차라떼맛’은 깊은 풍미의 말차라떼맛 쿠키에 달콤한 초코칩을 넣었고, ‘초코송이 말차케이크맛’은 말차 초콜릿과 카카오비스킷의 그린&블랙 조합으로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도 동시에 잡았다.

/신원선 기자

어나더닥터, 중기부 ‘딥테크 팁스’ 선정

정창희 대표 “티-그리드 기반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도약”

(AI 덴탈 솔루션)

AI 기반 초정밀 색상 측정
치과 보철물 제작과정 혁신
車·뷰티 등 적용 분야 확대

인공지능(AI) 덴탈 솔루션 스타트업, 어나더닥터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Deep Tech TIPS)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딥테크 팁스는 초격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어나더닥터는 이번 과정에서 지난 3월 프리팁스를 시작으로 디딤돌 연구 개발(R&D) 과정을 거쳐 9월 딥테크 팁스까지, 6개월 만에 주요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하는 이례적인 성과로 눈길을 끌었다.

어나더닥터는 AI 기반 초정밀 색상 측정 기술을 통해 치과 보철물 제작 과



정의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문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핵심 솔루션 ‘티-그리드(T-GRID)’는 치과와 기공소 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색상 소통 오류를 해결하고, 보철물 재제작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치과 보철물(인공치아) 제작 과정은 여러 단계에 직면해 있다. 치과에서는 고가의 DSLR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지만, 촬영 시점의 조명이나 각도 등에 따라 색상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부정확한 이미지가 기공소로 전달되면, 기공사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수작업에 의존해 보철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색상 불일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기존 치아와 색상이 다른 보철물은 환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

제작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해 치과와 기공소의 매출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어나더닥터의 T-GRI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우선 고가의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 앱과 전용 컬러체커를 이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손쉽고 정확하게 치아 색상을 촬영할 수 있다. 그 이미지가 ‘컬러 캘리브레이션 엔진(Color Calibration Engine)’을 통해 서버로 전송되면 AI 알고리즘이 빛, 각도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보정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색상 값을 추출한다.

분석된 정확한 색상데이터와 디지털 채색 가이드는 웹 플랫폼을 통해 치과와 기공소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원활한 소통과 정밀한 보철물 제작을 지원한다. 어나더닥터는 T-GRID 솔루션을 통해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보철물 재제작률을 90%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GRID의 핵심 기술력은 다수의 국내외 특허 출원을 통해 보호받고 있다. 어나더닥터는 치과 시장을 시작으로, 향후 자동차, 인테리어, 뷰티, 미술품 복원 등 초정밀 색상 측정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로 기술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어나더닥터의 기술력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어나더닥터는 지난 8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소풍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추가로 유치한 바 있다.

정창희 어나더닥터 대표(사진)는 “이번 딥테크 팁스 선정은 어나더닥터의 기술력과 비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9월 MVP 출시에 이어 오는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한 뒤, K-메디컬의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metroseoul.co.kr

신제품

아모레 ‘미모 바이 마몽드’ 수분·클렌징 라인업 확대

아모레퍼시픽은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 바이 마몽드’에서 신제품 6종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브랜드 대표 제품이자 수분 결광에 특화된 ‘로지-히알론’ 제품군에서 3종, 새롭게 선보이는 ‘민트-AHA 클렌징’ 제품군에서 3종을 선보인다.

로지-히알론 신제품(사진)은 화장 전 피부를 정돈하는 대형 면봉 형태의 마스크 ‘로지-히알론 볼 마스크’, 입술 보습을 관리하는 다기능성 립밤 ‘로지-히알론 글로우립 세럼’, PHA를 함유한 슬리핑 팩 ‘로지-히알론 슬리핑 마스크’ 등으로 구성됐다.

민트-AHA 클렌징 제품군은 ▲민트-AHA 클렌징 오일 인 워터 ▲민트-AHA 필링 젤 ▲민트-AHA 팩 클렌저 3종이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키엘’ 총판

미용·피부의료 시장 공략 속도

동국제약은 메디컬 에스테틱 바이오 소재 기업인 메디랩과 ‘마데키엘’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마데키엘은 스킨부스터 제품이다. 동국제약이 독자 구축한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과 메디랩의 고순도 키토산 기반 리퀴드 투 젤 기술을 결합해 차별화된 작용 기전을 갖췄다.

동국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미용·피부의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동국제약 메디컬 에스테틱 관계자는 “마데키엘은 과학적 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력 본질을 구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기능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며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트렌드 리포트’ 정기 발간

CJ올리브영이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리포트’를 정기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트렌드 리포트는 해마다 1억 개 이상 쌓이는 올리브영 내부 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획된다. 올리브영은 K뷰티 소비 유형을 분석하고 산업 전반의 미래를 조망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콘텐츠로 선보인 ‘당신의 가을은 안녕하십니까?’는 기후 분석 리포트다. 최근 5개년 치 내부 데이터와 외부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 결합했다.

절기상 가을인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기후 변화 속에서 K뷰티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기온, 습도 등 기후가 K뷰티 소비자들의 쇼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초격차 생산능력 뽐낸다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CMO 브랜드 ‘엑셀런스’ 강조
CDO 서비스 주제 세션 진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5’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 종합 박람회로, 최신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년 연속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오는 2032년까지 확보 예정인 132만 4000 리터 수준의 초격차 생산능력, 삼성 오가노이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CDO) 플랫폼, 임상시험수탁(CRO)부터 위탁생산(CMO)까지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서비스 등을 알린다.

특히 최근 공개한 신규 CMO 브랜드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5’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스 조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엑셀런스’를 적극 강조할 예정이다. 엑셀런스는 고객에게 일관된 품질의 의약품을 신속히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행사 이틀째인 16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CDO 서비스를 주제로 한 세션도 진행한다. 이태희 항체배양PD팀장(상무)이 연사로 나서 ‘신약개발 가속화: 개발 가능성 평가부터 임상시험 계획 제출까지’에 대해 설명하며 고객사

신약개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스폰서십 활동도 펼친다. 전시장 부스 상단에는 행잉 배너를, 하단에는 플로어 배너를 설치하고 회사의 비전과 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콜마비엔에이치, ‘이승화·윤상현·윤여원’ 각자 대표체제 구축

생명과학 중심 고부가 사업 전개

콜마홀딩스 자회사 콜마비엔에이치가 경영 쇄신을 단행하며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을 실현한다.

콜마비엔에이치는 이승화 사내이사,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이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로운 경영 체제와 함께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콜마홀딩스는 14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콜마비엔에이치 사옥에서 콜마비엔에이치 이사회를 열고 이승화 사내이

사, 윤상현 부회장의 각자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의결은 전문성을 강화한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콜마비엔에이치를 그룹 핵심 기업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이다.

이승화 신임 대표이사는 사업 및 경영 전반을 이끈다. 이 대표는 CJ제일제당 경영리더, CJ부사장, CJ프레시웨이 상무, 베인앤컴퍼니 이사 등을 역임한 전략 전문가다.

윤상현 신임 대표이사는 콜마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콜마비엔에이치의 중장기 비전 수립 및 전략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윤 부회장은 2026년 3월 정기 이사회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이 기간 동안 신임 이승화 대표이사와 윤여원 대표이사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룹 차원의 전략적 방향성과 시너지를 강화해 콜마비엔에이치의 지속성장 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윤여원 대표이사는 대외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한다. 윤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 의사결정 등 회사 경영 전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했다.

애경산업

프로액티브 맨 2in1 샴푸

애경산업은 고급 헤어관리 브랜드 ‘케라시스’에서 남성용 ‘프로액티브 맨 2in1 샴푸’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간편한 사용을 선호하는 남성 소비자를 위해 샴푸와 컨디셔너 기능을 하나에 담고 있다.

또 나이아신아마이드, 텍스판테놀, 살리실릭애씨드 등 탈모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함유한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화장품 보고를 완료해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티트리, 진저, 맥주효모 등 자연 유래 성분을 처방한 것도 특징이다. 모발과 두피를 관리할 수 있고 비듬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생강즙

동아제약이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생강즙’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네덜란드산 유기농 생강과 이탈리아산 유기농 레몬을 7:3 비율로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원료를 씨앗부터 껍질까지 통째로 착즙하는 방식을 적용해 생강의 알싸함과 레몬의 상큼함이 조화를 이뤄내면서도 두 원료 본연의 풍미와 영양을 최대한 살렸다.

특히 물, 설탕, 인공첨가물,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은 100% 유기농 착즙 원액으로만 구성됐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 CCP)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됐다.

비타그란 유기농 레몬생강즙은 개별 막대형 파우치로 편의성을 높였으며 물이나 탄산수를 섞어 다양하게 섭취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K바이오 혁신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2시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5 제약 · 바이오 포럼
 - 주 제 K바이오 혁신 : 독자기술로 여는 미래
 -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 등 록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제약 · 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0	〈축사〉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14:50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강연	14:50~15:20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 오가노이드 기반의 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 전략
	15:20~15:50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아젠다연구소장 :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15:50~16:20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 : 식품산업에서 오가노이드 활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견련-KCL, 중견기업 경쟁력·글로벌 진출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3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천영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KCL 서초사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견련



LG U+, 소아암 환아와 화담숲 사생대회 열어

LG유플러스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 86명을 초청해 경기 광주시 화담숲에서 사생대회 '화담숲 힐링 캔버스'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 활동 '아이드림챌린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아암 환아는 장기 치료와 입원으로 외부 활동 기회가 제한된다. 환아 가족 역시 돌봄 부담으로 휴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LG유플러스는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LG유플러스



하나銀-인천시, '외국인 컬처뱅크' 운영 협력

하나은행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외국인 컬처뱅크'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금융과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왼쪽)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KB국민銀-신용회복촉, 'KB희망금융센터'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샤브서울

오는 25일 오픈 4주년 행사

종합주류기업 아영FBC가 운영하는 와인&미식공간 샤브서울(Sav,seoul)이 오픈 4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서울 압구정에서 'Happy Birthday, SAV' 기념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와인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기존 와인 문화를 한층 캐주얼하고 흥미롭게 재해석했다.

행사는 당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약 300~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전 구역 티켓제로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차, 英 테이트 모던 미술관서 현대미술 전시

**현대미술·대중화 지원 파트너십
'마켓 안네 사라: 고아비-기블'
사미사회 시선서 생태문제 탐구**

현대자동차가 내년 4월 6일까지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현대 커미션: 마렛 안네 사라: 고아비-기블' 전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 커미션은 현대차와 테이트 미술관이 현대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체결한 장기 파트너십이다.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마렛 안네 사라는 사미 공동체의 시선에서 생태 문제를 탐구하는 작가



'현대 커미션: 마렛 안네 사라: Goavve-Geabbil' 전시 전경.

다. 사미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북부에 걸쳐있는 사프미

지역에 거주해 온 토착민으로, 마렛 안네 사라는 사미 사회가 직면한 생태

문제를 조명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 제목의 '고아비-기블'은 그의 작품인 '고아비-'와 '-기블'의 작품명을 결합한 것이다. '고아비'는 기후 변동으로 동물들이 먹이를 얻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사미어다. 마렛 안네 사라는 순록 가족을 전력 케이블로 정교하게 엮은 대형 조형 작품을 전시했다.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다는 뜻의 '기블-'은 순록의 코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미로 형태의 설치 작품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화그룹, APEC서 불꽃·드론쇼 펼친다

최고등급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APEC CEO' 서밋 등도 참여

한화그룹은 14일 APEC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오는 31일 열리는 갈라 만찬에서 대규모 불꽃쇼와 드론쇼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약 5만발의 불꽃과 2000여 대의 드론이 경주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한화는 불꽃·드론쇼를 비롯해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관련 비용을 전폭 지원한다.

또한 한화는 APEC 공식 후원사 중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APEC CEO 서밋'에도 참여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3사는 오는 27일 국립경주 박물관에서 '한화 퓨처테크포럼: 방위산업'을 개최하고, 국내외 군(軍) 및 방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방산의 경쟁력과 미래 기술 비전을 소개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역할과 국제 협력 방안,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이끄는 글로벌 전장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화큐셀이 CEO 서밋 중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PEC 정상회의 갈라만찬 불꽃드론쇼 시연 이미지. /한화

친환경에너지'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한화큐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에이전틱(Agentic) AI 운영 기술과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APEC 행사 전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에도 나선다. 그룹은 APEC 파트너십 로고를 반영한 자체 광고 영상을 제작해 서울역, 경주역, 김해공항 디지털 옥외광고, KTX 객실 스크린, CEO 서밋 및 퓨처테크포럼 행사장 LED 등을 통해 송출 중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CEO 서밋 행사장인 경주 예술의전당 내에 한화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과 기술, 솔루션을 소개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회의장을 찾는 정상 및 CEO, 세션 연사 등 참가자들에게 한화를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타이어, 대전서 '나눔음악회' 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려

한국타이어가 오는 10월 23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2025 나눔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나눔음악회'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타이어가 2012년부터 주최하는 문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충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가수 린, 장혜진, 민수현, 황우림 등 실력과 뮤지션들의 흥겨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운권 추첨을 통해 타이어 증정권, 각종 가전제품 등 풍성한 선물도 전달한다.

한국타이어 서의돈 안전생산기술본부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가치 실천에 앞장서신 사회복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롯데百貨-골든듀, '한글 주얼리' 특별전시

안상수 작가와 협업

롯데백화점이 한글날을 기념해 주얼리 브랜드 '골든듀(Golden Dew)'와 함께 특별 전시 <주얼리, 한글에 흘리다>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잠실점 6층 아트홀에서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거장 안상수 작가와 협업한 것이 특징이다. 안 작가의 대표작 27점과 함께, 한글의 조형미를 모티브로 제작된 골든듀의 '2025 F/W 헤리티지 컬렉션' 30여 점이 함께 공개된다. 골든듀가 한글을 주제로 백화점에서 여는 첫 단독 전시이기도 하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존도 마련했다. 전시장 입구의 한글 모형 '히을

(ㅎ)' 포토존에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행복', '희망' 등 단어가 새겨진 자개키링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배우 김태리의 목소리로 녹음된 오디오 도슨트 서비스도 제공된다.

전시 기간 잠실점 1층 골든듀 매장에서는 헤리티지 컬렉션 전제품을 선보인다. 한정 수량의 캐럿 다이아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 금액대별로 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정의정 디자인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한글을 예술 콘텐츠로 재해석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한글의 조형미와 주얼리의 예술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인 만큼, 많은 고객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J대한통운, 소형가전 자원순환 확대

'리플러스 캠페인' 운영

CJ대한통운이 물류인프라를 활용한 소형가전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한층 확대한다. 알루미늄캔, 종이팩, 폐휴대폰에 이어 소형가전으로 영역을 넓혔다.

CJ대한통운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기업 '리맨'과 협력해 비대면 소형가전 수거 캠페인 '리플러스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오래된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소형 가전제품을 CJ대한통운의 오프(O-N-E)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회수한다. 이후 '리맨'의 전문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으로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제거한다.

참여 방법도 간단하다. '리플러스박스' 웹사이트에서 수거를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연동돼 별도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충주시의회 ◇5급 승진 △의사팀장 윤현중

부음

▲전상학씨 별세, 이한호씨 외조부상 =

13일, 부산광역시 금사장례식장 VIP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장지 부산영락공원 정관추모공원. 051-977-4444
▲김용분(향년 90세)씨 별세·김주일 주이씨 모친상·김형구(파이낸셜뉴스 정치부 기자) 원구 성구 민지씨 조모상=14일 실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16일 오전 9시. (031)966-100



IZAKAYA
NAMU
이자카야 나무

EVENT

1+1

정식
이벤트



이벤트 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30일(목)

장소 | 이자카야 나무 15개 전 지점

참여방법 | 정식 주문 고객 (저녁 7:30까지 주문 가능)

혜택 | 저녁 정식 6종 1+1 (동일메뉴 1+1, 단품 제외)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힘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2025년 기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31명이다. 반면 한국은 평화상과 문학상 단 두 명이다. 과학상으로 한정하면 스코어는 더욱 벌어진다. 일본은 1949년부터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메달을 땀다. 올해만 ‘노벨 2관왕’을 기록했다. 한국은 여전히 ‘0명’이다. 후보로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왜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연구의 시간’을 우리 사회가 견디지 못한다는데 있다. 기초과학 분야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의 연구 환경은 한 과학자가 20년, 30년에 걸쳐 하나의 주제를 파고들 수 있도록 설계된다. 시간은 단절되지 않고, 축적은 곧 공동의 유산이다. 이것이 노벨상의 토대가 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연구 시스템은 다르다. 대부분의 과제가 단기로 제한되고, 평가와 보고서, 실적 중심의 체계가 지배한다. ‘깊이’에 앞서 ‘속도’가 우선되다보니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 공모에 응해야 한다. 한국의

미술창작레지던시 제도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한다. 과학계처럼 이곳도 상시적 갱신의 습관화가 고착되어 있다.

레지던시는 예술가에게 일정 기간 창작 공간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 예술 증진과 장기적 창작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선발해 다양한 실험 및 교류를 지원하여 거목으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러나 이들의 다수는 공모, 심사, 입주, 결과발표 전시를 잇는 단기형 ‘순환 이벤트’ 공간이기 일쑤다.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레지던 시도 마찬가지다. 예술가들은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기껏해야 1년 남짓 체류할 수 있다. 그기간 동안 결과 전시와 보고라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입주 작가 결과전이 종료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즉, ‘리셋(reset)’ 된다.

과학에서 노벨상이 기초연구의 결실이 라면, 예술에서도 기초예술의 개념은 필수적이다. 여기서의 기초예술이란 드로잉 연습이나 조형요소와 원리 따위를 배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결말을 전제하지 않은 탐구, 당장의 완성보다 연구의 시간을 통한 ‘과정의 사유’를 중시하는 창

작을 뜻한다. 레지던시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어쩌면 그것이 본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정책은 이 개념을 제도화하는데 무관심했다. 예술가의 시간을 과정의 사유로 채울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다년형 체류 프로그램이 요구될 뿐더러, 과정 중심의 평가와 입주 이후의 후속 연구 지원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나아가 실패의 기록이나 기억의 연결까지 미학적 자산으로 삼도록 장려해야 맞다.

현실은 판이하다. 연구의 시간을 ‘기한의 시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일부 공공 레지던시에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역 경제 활성화나 도시재생, 관광의 도구로 소비한다.

한국이 과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전혀 없는 이유나 한국의 레지던시가 세계적 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또는 레지던시를 통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배출되지 못하는 배경엔 ‘시간의 가치’에 소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정의 사유에 인색하고 장기간에 걸친 연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다. 이제는 기초과학이든 문화예술이든 천천히 익어가는 시간의 힘을 믿어야 할 때다. 지난 76년간 일본이 그러했듯 말이다.

/미술평론가

車업계, 정부 정책 속도 맞추다 붕괴될 수도



기 자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자동차 부품 산업은 한 번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제조 업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전

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향후 10년간 840만대를 보급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차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수치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국의 누적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8월 기준 82만여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겨우 80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배터리 안전과 충전 인프라 문제로 전기차 보다는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기차의 판매를 확대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리고 있다.

수십년간 내연기관 부품을 개발해온 부품 업체들은 당장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만여 개 국내 부품사 중 45.2%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기업 종사자는 11만5000명에 달한다”며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뒤 전기차만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장 투자를 늘려 3년 뒤부터는 제품 전환을 해야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ysw@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5일 (음 8월 24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조금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온다. 48년생 형제의 방문으로 근심이 쌓인다. 60년생 승진 누락에 상심 말고 외국어 공부에 도전. 72년생 고부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게 된다. 84년생 손해가 났어도 다시 분석하여 깨닫자.



소

37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게 된다. 49년생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니 이혼 도장은 다음으로 미루라. 61년생 실력 없이 잘난 척 마라. 73년생 언행이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뒷말. 85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호랑이

38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빨리 포기하자. 50년생 내가 웃으니 거울도 따라 웃는다. 62년생 실력 발휘가 되니 조직에서 영업 이득이 발생한다. 74년생 초자연에 꿈을 꾸니 잠을 설치. 86년생 원숭이띠와 의견대립을 조심.



토끼

39년생 바람이 불어와도 움직이지 마라. 51년생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있다. 63년생 기쁨 근심은 양면. 75년생 감언이설에 반은 의심해 볼 것. 87년생 한발 물러서 보면 시간도 많고 세상도 넓고 누구 말대로 할 일도 많다.



용

40년생 명심보감에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52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은 좋으나 손재수도 있다. 64년생 일찍 귀가하자. 76년생 집 짓는 일에 나서다가 일을 그르치니 조심. 88년생 모 아니면 도인 것이 인생이니.



뱀

41년생 공상의 거품은 사라지고 아쉬움만 남는다. 53년생 내가 모르는 분야를 모른다고 인정해야. 65년생 능력을 과신하다가 실수. 77년생 습관의 나쁜 폐단은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89년생 신념을 가져야 목표에 닿을 수가 있을 것.



말

42년생 자식 자랑에 침이 마르는 꼴볼견. 54년생 물을 두려워하면 수영선수가 되기 어렵다. 66년생 실질적인 힘을 쓰도록. 78년생 일의 순서에 억지로 주장을 펼치지 않도록. 90년생 호의가 계속되면 상대는 당연한 권리로 착각할 것이다.



양

43년생 재물이 들어오니 위로가 된다. 55년생 배우자가 될 인연이 이어진다. 67년생 싫다고 다 내뱉으면 누가 내 곁에 남아 있었는가. 79년생 나이 먹어 가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다. 91년생 핑크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해보자.



원숭이

4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즐거움이다. 56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68년생 개천에서 용이 나는 꿈을 꾸어 행운이다. 80년생 동업자와 뜻이 맞아야 영업에 이득. 92년생 좋은 일은 자랑해도 이해가 되겠으나.



닭

45년생 시장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 57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69년생 이제라도 감추위에 맞서는 노력을. 81년생 재물 늘고 손뼉을 치면 웃을 일이 생긴다. 93년생 매일 뜨는 태양도 누군가는 다시 보길 간절히 원한다.



개

46년생 이제라도 최소 한 가지 일에 능통해 보자. 58년생 지난 일은 잊고 내일 일을 챙겨라. 70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82년생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한심. 94년생 삼재팔난이 아니어도 말로 인해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돼지

47년생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대비. 59년생 이득을 보고자 함에 내 뜻만 관찰 수는 없다. 71년생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니 겸손을. 83년생 무슨 일이든 다시 찾아 도전. 95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하는 준비가 있어야.

김상회의四季

지리산, 민족의 정기



한반도 남녘에 우뚝 솟아 있는 지리산은 남한에서 가장 넓고 웅대한 산맥으로 알려진 지리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넉넉하면서도 강력한 정기를 품고 있다. 백두대간의 남쪽 끝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한반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처럼 서 있는 산이다. 지리산은 풍수지리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백두산에서 시작한 산의 기운이 수천 리를 내달려와 지리산에서 그 힘을 응축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에서 산줄기는 용맥이라 하는데, 지리산은 그 용맥이 힘차게 내려와 뿌리를 내린 곳이다. 지리산의 기운은 단단하고 깊으며 그 품이 넓어 수많은 생명과 사람을 품어왔다. 그래서 지리산은 예로부터 영산으로 숭앙받았다. 지리산의 정기를 언급한 기록을 옛 문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옛사람들은 지리산의 정기가 워낙 크고 강하여 산자락에 명당이 많다고 했다. 그 명당의 핵심에는 혈 자리가 있다. 혈 자리는 산과 물의 기운이 모이는 지점으로 집이나 절 혹은 무덤을 쓰면 복과 번영이 깃든다고 했고 실제 그렇다. 지리산의 골짜기마다 굽이치는 능선은 마치 용이 꿈틀대는 듯한 역동적인 형세를 보이며 그곳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혈 자리가 맺혀 있다. 지리산 자락의 혈 자리는 맑은 기운이 넘치고 안정적 형세여서 그곳에 자리한 마을과 사찰은 끊어지지 않는 생기를 이어왔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은 강한 정기 때문에 수난을 겪기도 했다. 지리산의 정기가 독립운동의 불씨가 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곳곳에 쇠말뚝을 박은 것이다. 풍수지리 이론을 알고 있던 일제는 산의 정기가 모이는 혈 자리를 찾아내고 그곳에 쇠말뚝을 받았다. 쇠말뚝으로 혈맥을 끊으면 산의 정기가 약해지고 훼손되리라 생각한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7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레아티브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레아티브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레아티브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김건희 논문·선문대 예산·사교육 실태… 현안 공방 ‘격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논문 대필 정황에 연구윤리 논란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행사 의혹
유아사교육 실태 부실 관리 지적
교육부 “사실 확인 후 조치 검토”

통일교와 관련된 선문대학교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사업비를 교세 확장이나 종교 행사에 활용했다는 부적절 사용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및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해 선문대 재정지원금 집행 논란, 유아 영어 사교육 실태 등 교육정책 신뢰와 관련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건희 논문 대필·연구윤리 공방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든 연구윤리 관리 부실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이 사실상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리서치 업체가 김 여사와 설민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시에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 자료가 논문 내용에 그대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연구관리

지침 개정을 약속했지만, 대학 자율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구부정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박사논문을 대학 내부 심사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논문 윤리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유용 의혹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문대가 산학협력·현장실습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통일교 행사에 동원했다”며 “선교 영어실습, 평화 순례 등 이름으로 9500만원이 쓰였고, 이후

신학과 구분도 없이 예산이 흐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세금이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교육적 사용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 영어사교육 부실 관리

조기 영어 사교육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교육위원회 질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경쟁과 입학시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에 해당하는 23곳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형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을 ‘레벨테스트’ 대신 ‘CMC(클래스 매치 체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형식상 시험이 아니라 ‘학습 수준 진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아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사교육이 조기경쟁을 조장하고 가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유사 명칭 학원까지 포함한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20명 이상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은 어른들이 만든 결과”라며 “영유아 사교육은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남대문 쪽방촌 주민 142세대 ‘해든집’ 이주

강제철거 없는 순환정비 첫 사례
상담·자활·편의시설 한곳에 조성
“약자와의 동행” 서울형 복지모델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남대문(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를 마쳤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든집은 지상 18층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담소와 자활시설 등 복지공간으로, 6층부터 18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초 입주를 시작해 현재 142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뜻으로, 2021년 정비 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돼 약 4년 만에 준공됐다. 특히 건물 5층에는 쪽방 주민의 상담·의료·자활지원을



‘남대문(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를 마쳤다. 사진은 임대주택 내부 모습. /서울시

담당하는 ‘남대문쪽방상담소’가 이전해 입주민 정착을 돕고 있으며, 공동작업장·편의점·빨래방 등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쪽방촌을 전면 철거

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먼저 새 주택으로 이주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는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개발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을 격려하고, 사회공헌 단체 및 기업과 함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한 모범사례”라며 “도시의 성장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든집 입주민의 생활 변화를 분석해, 영등포 등 다른 쪽방 밀집지역의 순환정비사업 모델에도 활용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 광주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추진

‘선택형 직불사업’ 시행

경기 광주시는 국비 100%로 추진되는 ‘2025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본격적 이행한다.

이 사업은 논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저탄소 실천 사업으로 지역 내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저탄소 영농 활동에 대해 이행활동비를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사업 참여 농업인의 이해도 제고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도청농협 교육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교육을 실시했다.

또 ‘2025년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친환경 벼 재배 생산자 단체를



경기 광주시청.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와 신규 필지 확대에 따른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행성과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광주시형 저탄소 농업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몽골 교원 24명, 서울시 디지털교육 연수

서울시교육청, AI·ICT 노하우 전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몽골 현지 교원과 재한몽골학교 교원 24명을 초청해 ‘몽골 교원 디지털교육 세계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06년 서울시교육청과 몽골 울란바토르시청 간의 교육교류협

약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서울교육이 축적해 온 ICT·AI 활용 수업 노하우를 몽골에 전수하고, 현지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는 ‘서울시교육청 LEAD 교사단 (Leading Educators for Achieving digital learning Development)’이 실습·수업 중심으로 진행한다. 참가 교원들은 ▲AI 윤리를 중심으로 한 교과용

합 수업 설계 ▲언플러그드 활동 및 영상 제작 실습 ▲로봇·센서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수업을 체험한다.

16일에는 연수단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양 교육청 간 디지털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23일 수료식에는 정근식 교육감이 참석해 연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몽골 교원 327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몽골 교원 10명과 재한몽골학교 교원 14명을 새로 초청했다.

/이현진 기자



▲스페이스 X 스타십, 11차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사진 뉴시스
▲캄보디아 대기업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 83명 무더기 적발

▲우크라, 러 향한 공세 강화… 17일에는 트럼프와 무기 지원 논의
▲美, 中 국적 선박에 입항 수수료 징수 개시… 통상 분쟁 본격화

▲美 셧다운 13일차… 공화 하원의장 “셧다운 협상 없을 것”
▲멕시코, 홍수 피해로 인명피해 속출… 최소 64명 사망·실종



식품업계
3분기 실적 개선
원가 하락·수출 호조
L1



Life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박람회서
초격차 생산력 소개
L2



“단백질 분해로 암 정조준… TPD 신약으로 희귀암 공략”

〈표적 단백질 분해제〉

속깊은 人터뷰 조 현 선 핀테라퓨틱스 대표

국내 바이오텍이 개발한 표적 단백질 분해제(TPD) 기반 선택적 분자접착 분해제(MGD)가 이 달부터 고형암 환자 대상 임상상을 개시한다. 일차적으로 대장암, 전립선암, 선양낭성암(침샘암) 환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핀테라퓨틱스의 신약후보 ‘PIN-5018’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받은데 이어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다. 회사측은 승인 후 약 두달 만인 10월부터 국내에서 약 40~45명의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PIN-5018은 ‘CK1α’라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차세대 MGD로,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MGD 임상 진입 사례로는 전 세계적 선두그룹 중 하나로 평가된다. 특히 PIN-5018은 아직 승인받은 치료제가 없는 선양낭성암(침샘암)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 모델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해를 확인하며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현선 핀테라퓨틱스 대표는 “MGD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드문 가운데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 1상에 진입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확립하고, 회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선 핀테라퓨틱스 대표가 경기 성남시 핀테라퓨틱스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TPD는 왜 이렇게 주목받나.

“대부분의 질병은 특정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발생한다. 기존 치료제들은 이러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왔지만, TPD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PD 분야는 2010년대 초중반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됐으며 점차 빅파마와 바이오텍들이 연구개발에 활발히 나서고 있어, 잠재력과 성장 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PIN-5018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TPD 가운데에서도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MGD 분야의 신약이기 때문이다. TPD는 크게 프로탁(PROTAC)과MGD로 구분된다. MGD는 프로탁의 단점이 개선된 차세대 분자접착제 기반 신약 기술로 평가되지만, 분자 구조적 특성상 설계와 최적화가 까다로워 연구개발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MGD는 어떤 경쟁력이 있나.

“MGD는 PROTAC보다 분자의 크기가 작다. 분자가 작다는 건 알약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를 목표로 할 때 유리하다. 특히 고형암 치료제는 환자 편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구용 제형이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중증 질환의 경우에도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며 환자가 질병을 스스로 관리해보고자 하는 것이 보편화되며, 삶의 질이 치료제 시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첫 임상이다.

“마라톤에서 30km 지점을 ‘사점’이라고 한다. 이를 넘기면 순위가 잘 바뀌지 않는다. 임상도 마찬가지이다. 당사는 올해 5월 미국 FDA, 8월 한국 식품의약

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상 승인을 획득했으며, 향후 속도감 있게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MGD는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 5년 남짓에 불과해 전 세계적으로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 드물다. 추적이 쉽지 않은 First-in-Class 신약에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임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10월부터 한국에서 약 40~45명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 승인 후 불과 2개월 만에 임상이 시작되는 것은 임상 계획이 탄탄하고, 환자 모집도 비교적 원활하다는 의미이다. First-in-Class신약의 이점 및 차별성을 바탕으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임상 1상 결과를 도출하면 기업 가치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IN-5018은 4개 암종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으며, 결과에 따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기회도 있다.”

PIN-5018의 또 다른 기대는 희귀암 시장에 있다. 핀테라퓨틱스는 지난 5월 미국 환우재단인 선양낭성암연구재단(ACCRF)과선양낭성암(침샘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ACCRF가 바이오텍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 사례다.

-ACCRF 재단은 어떻게 연락이 왔나.

“선양낭성암은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치료제가 전무한 희귀암이다. 환자 수는 적지 않지만 치료 옵션이 없다. PIN-5018은 ACC 비임상 모델에서 단독 투여만으로 완전관해(CR)를 보여 ACCRF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협약으로 이어졌다. 환우회 재단은 절박한 상황에서 PIN-5018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차세대 MGD로 글로벌 임상시험 단백질 분해로 종양 완전관해 확인

선양낭성암 등 희귀암에 효과 보여 ACCRF 협력… 美 임상 도움될 것

차세대 TPD 플랫폼, 새 질환 공략 경구용 분해제 등 파이프라인 가속

탄탄한 경쟁력으로 투자금 확보해 내년 상장 목표… 혁신신약개발 박차 韓바이오산업 투자 선순환 이끌 것

수면에 아직 오르지 않은 핀테라퓨틱스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새로운 E3 리가아제(Ligase)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TPD 플랫폼 ‘PinMARS’다. 조 대표는 이 플랫폼을 통해 기존 TPD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환군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플랫폼인지 쉽게 설명을 부탁한다.

“TPD는 질병 유발 단백질에 E3 리가아제를 연결해 분해 신호를 전달하는 기전을 가진다. 이때 ‘E3 리가아제’가 TPD의 핵심 기술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E3 리가아제는 CRBN과 VHL이다. 핀테라퓨틱스는 이들의 한계를 극복할 신규 E3 리가아제를 확보해 TPD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췄다.”

-PinMARS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

“플랫폼의 핵심 신규 E3 리가아제인 ‘Ligase 2’는 기존 리가아제 대비 혈액·면역 독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단백질들도 타깃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Pan-KRas’ 분해제는 KRas라는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분해제이다. KRas는 경쟁이 치열한



-ACCRF 협조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FDA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ACC 치료제 개발로 진행되는PIN-5018의 임상 1상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반응이 확인될 경우, 가속 승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피드백이 있었다. ACCRF의 협력은미국 임상 과정에서 환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기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ACCRF와의 최근 미팅을 통해서 임상 1상이 한국에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한 환자들의 아쉬움을 전해 들었고 빠르게 미국에서도 임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수면에 아직 오르지 않은 핀테라퓨틱스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은 새로운 E3 리가아제(Ligase)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TPD 플랫폼 ‘PinMARS’다. 조 대표는 이 플랫폼을 통해 기존 TPD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환군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플랫폼인지 쉽게 설명을 부탁한다.

“TPD는 질병 유발 단백질에 E3 리가아제를 연결해 분해 신호를 전달하는 기전을 가진다. 이때 ‘E3 리가아제’가 TPD의 핵심 기술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E3 리가아제는 CRBN과 VHL이다. 핀테라퓨틱스는 이들의 한계를 극복할 신규 E3 리가아제를 확보해 TPD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췄다.”

-PinMARS는 어떤 차별성이 있나.

“플랫폼의 핵심 신규 E3 리가아제인 ‘Ligase 2’는 기존 리가아제 대비 혈액·면역 독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단백질들도 타깃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발 중인 경구용 ‘Pan-KRas’ 분해제는 KRas라는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분해제이다. KRas는 경쟁이 치열한

블록버스터 타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E3 리가아제로 공략이 어려운 면이 있어 경구용 Pan-KRas 분해제의 임상 파이프라인이 전무한 형편이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도 First-in-Class 임상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핀테라퓨틱스는 2026년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VC)를 통해 683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바이오 투자 한파 속에서도 300억원의 투자를 유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 지속 투자받을 수 있던 경쟁력은.

“핀테라퓨틱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분야의 선두주자에 가깝다고 평가받으며, 임상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기대감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탄탄한 파이프라인과 임상 계획, PinMARS 플랫폼 기반 후속 프로그램 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상장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TPD 시장은 미국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신약개발 바이오텍이 혼자 뛰어들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이지만, 우리는 TPD 분야라는 신약개발의 혁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그 동안 바이오 분야는 투자 암흑기를 맞으며,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멈추고 생존 모드로 전환했다. 이 기간이 더 지속되면 성장 잠재력이 큰 바이오텍들이 실력 발휘를 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리딩 바이오텍으로 성장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신뢰 회복과 선순환적 투자 사이클 형성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10년만에 캡틴 교체… 정지석 ‘완장’
▲프로배구 2025-2026시즌 18일 개막…‘중간밸리’·‘그린카드’ 폐지 /사진 뉴스스

▲영국 챔스 2부 포츠머스 양민혁, 시즌 복귀 이후 2경기 연속 득점
▲역도 박혜정, 부상 극복하고 세계선수권 석권… 2년 만에 정상 탈환

▲쇼트트랙 신인 임종언, 성민 무대 데뷔전에서 ‘2관왕’ 달성
▲‘롤드컵’ 첫 경기부터 T1-IG 최강팀 격돌…‘단두대 매치’ 전망